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으로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 및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노 명 환**

차 례

- I. 머리말
- II.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에 의거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 III. 브란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에 기초한 유럽연방주의와 동방정책, 그 유산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원리
- IV. ‘성리학적 구성주의’ 와 복잡계 이론으로 보는 김대중의 평화 사상 및 햇볕정책과 현재 한국의 남북관계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주는 시사점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한국외대 사학과 / 정보·기록학과 교수

I. 머리말

필자는 그동안 브란트(Willy Brandt)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Einheit in Vielfalt)’ 사상과 정책을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필자 나름의 사유의 틀로서 조명해보고자 노력해 왔다.¹⁾ 이러한 기반 위에서 또한 한국의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한 사유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해왔다.²⁾ 이러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통해 필자는 이외에도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대립적 관계와 같은 현실에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융합적인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는 평화와 공존의 기제(mechanism)를 제시해 보고자 노력해 왔다.³⁾ 세계인들이 이러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같은 개념을 공유할 수 있으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필자는 해왔다. 이 ‘성리학적 구성주의’는 필자가 동양의 성리학(性理學) 사상과 서양의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내용을 결합하여 세상 존재들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구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척해 오고 있는 사유의 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필자는 서양의 구성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 방법과 방향을 동양의 성리학이 내포하는 음양오행(陰陽五行), 이기(理氣), 이일분수(理一分殊)와 같은 개념들의 사유

-
- 1) 노명환,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및 ‘공동의 안보’ 개념과 동방정책에 대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의 조명』, 『역사학연구』 제65호, 205-244쪽; 노명환, 『빌리브란트의 망명 시기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구성주의 시각』, 『역사문화연구』 제53집(2015).
 - 2) 노명환,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기호학 이론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분단 극복 정책과 사상의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집: 동아시아 속의 분단 한국, 유럽 속의 분단 독일』(2015. 08)
 - 3)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공존과 화해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하나의 발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 예로서 Meung-Hoan Noh,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S. Huntingtons These: 'Zivilisationskollision' aus der Sicht von Sunglihak", in Peter Nitschke (Hg.), *Der Prozess der Zivilisationen: 20 Jahre nach Huntington. Analysen für das 21. Jahrhundert*, Berlin (Frank & Timme Verlag) 2014, pp. 241-251. 그 외에도 필자는 역사학의 이해 그리고 사료로서 기록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또한 이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적용해 오고 있다. 노명환,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문화연구』 제57집(2016), 149-219쪽.

체계와 결합시켜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사유 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서 필자는 성리학이 오늘날의 세계와 가치관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성리학의 본 뜻과 역사적으로 실현된 실제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성리학의 본 뜻이 많은 부분 역사적 현실에서 왜곡되어 실현되었다고 본다. ‘성리학적 구성주의’의 개념을 통해 필자는 성리학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대립하는 것들의 상호 작용과 조화’를 구성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융합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구성하는 양태와 방법’과 연계·해석하여 평화의 기제에 대한 보편적 설명을 찾고자 한다. 이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은 앞으로 그 본 뜻을 보다 온전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사유를 통해 새로운 개념과 용어로 대체될 수 있겠다. 이렇듯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사유 원리를 담고자 하는 가설적 틀이다. 그리하여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지향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은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사유 원리에 의거하여 대립과 갈등을 융합의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에너지로 승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인 예로, 브란트의 유럽연방주의, 유럽통합 및 동방정책, 김대중의 ‘글로벌 민주주의’ 사상과 햇볕정책은 이러한 사유 체계에 기초했다.⁴⁾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성리학적 구성주의’를 ‘복잡계(complex system)’ 이론과 연계하여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복잡계 이론이 기초가 되어 독일에서 현재 성공적으로

4) 필자는 서양의 구성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 방법과 방향을 동양의 성리학이 내포하는 음양오행(陰陽五行), 이기(理氣), 이일분수(理一分殊)와 같은 개념들의 사유 체계와 결합시켜 브란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사유 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사유의 틀을 통해 브란트의 위와 같은 사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조명하는 것은 물론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는 정체성의 단위들 사이의 작용에 대한 동양과 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사유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런가 하면 학문의 융합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융합적 사유의 시도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면 한다.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와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방과 공유, 연계와 융합, 충돌과 조화라는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를 브란트의 평화사상과 정책의 정신문화적 유산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⁵⁾ 독일인들은 평화와 민주주의 사상의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진행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물인터넷의 적용으로 연계와 융합이 필수적인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인들은 참여·개방형 의사소통 플랫폼을 열정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해가고 있기 때문이다.⁶⁾ 본 연구를 통해 브란트의 평화 사상과 정책의 기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정책을 추진하고,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햇볕정책의 유산 속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복합적

5) 물론 역사적으로 브란트와 제4차 산업혁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브란트가 제4차 산업혁명을 지향 가치로서 상상했다거나, 그러한 정책을 준비했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어떤 사료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전후 독일의 나치 시대에 대한 과거 청산 노력의 역사 속에서 양자(兩者)의 계보를 연관시켜 볼 수 있겠다. 즉, 브란트의 평화사상과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크게 보아 전후 독일의 나치 시대에 대한 과거 청산 노력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독일 현대사에서 브란트의 사상과 정책이 마치 저수지(貯水池) 같은 역할을 했다는 데서 필자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을 브란트의 사상과 정책의 유산으로 보는 관점을 통해, 우선 브란트 평화 사상의 가치를 현재 진행형의 보다 넓고 깊은 맥락에서 보고자 한다.

6)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등의 발전과 함께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부의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고, 인간의 삶이 극히 황폐화되는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자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리라는 '디스토피아(dystopia)'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아 가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마치 기계와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의 대두를 의미한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히 희망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들에 기초한 개방·참여형 플랫폼들을 통해 소통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이라면 인간의 자리를 무모하게 기계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부와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명환, 「독일 제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독일 모델'의 정립 및 위기 극복과 '다양성 속의 통일' 사회의 동력」, 『역사문화연구』 제65집 (2018. 02), 333쪽.

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화해·협력과 제4차 산업혁명이 그 원리에 충실한 가운데 상호 작용의 선순환 속에서 의미가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⁷⁾ 그런데 이러한 측면들을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모든 것이 독일의 경험에서 차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과 한국의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 또한 들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 우리가 브란트의 평화 사상과 분단 극복의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편적 사유의 틀로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참고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평화 사상과 정책을 성리학, 구성주의, 복잡계 이론과 제4차 산업혁명 원리의 융합적인 사유의 틀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 외에 기존에 참조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료들의 발굴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오늘날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접경(接境)의 인문학’과 같은 연구 대상들을 위해서도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접경(接境)은 서로 다른 것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인문학적 사유에 따라 충돌과 갈등·전쟁을 넘어 평화와 협력·창발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접경(接境)을 평화와 협력, 창발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인문학적으로 명확히 체계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7) 바로 이 점이 본 논문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평화 사상과 분단 극복의 정책과 함께 다루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II.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에 의거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1. 구성주의 이론과 ‘성리학적 구성주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의 다양한 갈래와 내용들 중에서 본고와 관련한 핵심 사안은 구조와 행위자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 기든스(Anthony Giddens)의 구성주의 이론인 구조화 이론⁸⁾, 웬트(Alexander Wendt)의 구성주의 이론⁹⁾ 등에서 끊임없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 과정이 설명된다. 이러한 구조와 행위자는 본장의 3절에서 설명하듯이 양자역학의 개척자 보어(Niels Bohr)의 상보적(相補的) 관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¹⁰⁾

여기에서 구조란 인간의 관계들로 맺어져 있는 집단 조직과 물리적 환경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관계 맺기로 이루어진 각 사회적 집단 단위들은 그 집단을 존재하게 하는 공동의 집단 목표와 성격, 즉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정체성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의 귀속감의 원천이고, 그 집단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갖는가?, 무엇이 민족 공동의 귀속감을 갖게 하는가?”하는 질문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8)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Audie Klotz/ 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Barnett, Michael,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한국어판: 알렉산더 웬트 (이욱연, 구갑우, 최종건 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2009).

10)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양자역학의 개척자 보어(Niels Bohr)는 ‘상보성(相補性) 원리’로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서로 필요로 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제시하고 정립해 갈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의 정체성, 교향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특정 문화권의 정체성, 그 외 다른 무수한 사회적 단위체들의 개별 정체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과 함께 나의 개인적 정체성을 밝혀볼 수 있다. 이 정체성은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적으로 존재한다. 정체성의 성격은 다른 정체성과의 비교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크다. 물리적 실체로 볼 수 있는 혈연, 언어, 인종 등으로 정체성의 단위를 구분 지을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고정 불변의 필연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인간 사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다양한 층위의 무수히 많은 다양한 측면들의 정체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정체성 단위체들은 독립과 자존, 이익 등을 추구한다. 그런데 각 정체성 단위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각 단위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정체성의 단위체들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쪽의 자존은 다른 쪽의 굴욕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다른 단위의 정체성을 공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리하여 다면적,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성 단위들은 복잡한 양상으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과의 비교 속에서 인식되는 상대성 때문에 충돌과 갈등, 적대의 관계는 더욱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관계를 평화와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관계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다. 본고에서 다룬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은 이러한 지점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다.

그런데 우리는 ‘각 단위체 안에서의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되는가?’,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제기들을 할 수 있다.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정체성이 단위체의 구조와 개인 구성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구성 과정에 있는 역동적인 것으로 본다. 앤더슨(Benedict Richard O’Gorman Anderson)이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개념적 구성 과정과 메커니즘을 뜻했다.¹¹⁾ 이러한 구성 과정으로서의 정체성의 단위는 또한 다른 단위들과 함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구성 과정의 역동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점이 다음 절에서 설명할 음양오행의 이론과 비교될 수 있는 측면이고, 필자로 하여금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를 다시 그 다음에 설명할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상호작용과 구성 과정의 역동성은 갈등과 대결, 전쟁의 상태를 야기하면서 적대 관계로 치달을 수 있는 정체성들 사이의 관계를 평화와 새로운 창조의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각 정체성 단위들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 구성 요소 사이에서 그리고 외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그 변화의 방향 속에서 그 단위체를 위한 이익의 내용과 성격도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이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구성되어 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변한다’는 명제를 가능하게 한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체성은 구성원 각자의 인식작용, 즉 개념적 구성(conceptual construction)의 결과다. 그런데 개념적 구성은 제 관계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상보적(相補的) 관계의 집단 내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집단 전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도 상호 작용을 통해 변화하게 되고, 그 만큼 정체성이 변화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각 정체성 단위들은 다른 정체성 단위들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또한 각 구성원들의 개념적 구성 속에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 이론은 무수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측면의 정체성들이 무수한 관계의 상호 작용들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상정한다.¹²⁾ 이러한 과정에서 정체성 단위들 사이의 관계 성격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크게 보아 그 이해관계도 변화한다. 그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익 불이익 등의 상황도 개념적 구성에 따라 손해로 생각되던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바,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정체성의 변화는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두

11) Benedict Anderson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2009).

12) 이러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정체성은 본래적인 것이고, 변할 수 없고, 그리하여 각 개별의 정체성 단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입장의 본질주의(essentialism)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정체성 단위 사이에서의 적대 관계가 개념적 구성에 의해 우호 관계로 변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남한, 대한민국만을 자신의 국가로 생각하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으로만 보는 경우와 장기적으로 북한을 함께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다르게 상정될 수 있다. 개념적 구성에 따라 북한은 적이 되기도 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나누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일본인의 정체성은 대립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시아인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정체성들 관계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독일인이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자신을 유럽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유럽인의 정체성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는 유럽통합에 속하는 다른 국가가 잘되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민족주의 경쟁의 시대에는 자신의 국가 아닌 유럽 국가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정체성이 변하면서 이해관계가, 가치관이 변하는 예이다. 이로써 유럽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예도 정체성의 변화가 이해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에 해당하겠다. 이러한 구성주의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이를 다음에서와 같이 음양오행이기(陰陽五行理氣)의 성리학의 세계관과 연계하여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

2. ‘ 성리학적 구성주의 ’와 ‘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

성리학은 음양오행이기(陰陽五行理氣) 이론에서 보듯 서로 다른 것들의 끊임 없는 상호 작용과 그를 통한 새로운 것의 발생 원리를 제시한다. 음(陰)과 양(陽)은 서로 다른 것들을 상징하면서 서로를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한 서로 같은 것 혹은 필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과 격물치지(格物致知), 거경함양(居敬涵養),

활연관통의 성리학 방법론에서 또한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성리학 사상과 앞에서 설명한 구성주의의 두 사유체계를 결합하여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생각해 왔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상보성(相補性)의 원리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이번 장에서 다룰 복잡계 이론,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다룰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정책,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1)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이기(理氣) 이론 그리고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성리학(性理學)의 음양오행이(陰陽五行理氣) 철학은 전통시대의 유교와 새로이 도교 및 불교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중국 송대(宋代)에 정립되었다. 그래서 성리학은 '새로운 유교(neo-confucianism)'로도 불린다. 음양(陰陽)의 개념은 주역(周易)에서 제시되고, 오행(五行)은 한대(漢代)에 도입되어 음양오행(陰陽五行)이 되었다. 음양(陰陽)의 다음 단계로서 오행(五行)을 설정하고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체계가 이루어진 것은 송대(宋代)에 이르러서였다. 이 음양오행(陰陽五行)이 이기론(理氣) 이론과 결합됨으로써 음양오행이(陰陽五行理氣) 이론의 성리학이 완성되었다.¹³⁾

성리학에 따르면 우주는 이(理)와 기(氣)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理)는 기(氣) 속에서 존재하면서 모든 작동하는 세계의 근본 원리를 제공한다. 기(氣)는

13) Anne D. Birdwhistell, *Transition to neo-Confucianism: Shao Yung on knowledge and symbols of re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Fritjof Capra,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Hoyt Tillman, Cleveland, *Utilitarian confucianism: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 Harvard Univ. Press, 1982; Haesuck Choi (최해석), "Spinoza und Chu Hsi : die Natur als der absolute Grund des menschlichen Seins in der "Ethik" Spinozas und der neokonfuzianischen Lehre Chu Hsis", Albert-Ludwigs-Universität 박사학위 논문, 1997.

실제로 작동하는 세계다. 기(氣)에서는 음(陰)과 양(陽)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한다. 음(陰)과 양(陽)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것들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는 만물이 상보적(相補的) 관계 속에 있음을 상징해 준다.¹⁴⁾ 이 둘은 같은 것이기도 하다.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음(陰)이 차면 양이 되고, 양이 차면 음(陰)이 된다. 그리하여 음(陰)인가 하면 양이고, 양인가 하면 음(陰)이다. 음(陰) 속에 양(陽)이 있고, 양(陽) 속에 음(陰)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양(陽)의 다른 측면이 음(陰)이고, 음(陰)의 다른 측면이 양(陽)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음양(陰陽)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에 의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음양(陰陽)의 상호 작용에 의거하여 오행(五行)이 만들어지고, 오행(五行)은 우주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한다. 우주와 그 작동 질서의 상징인 오행(五行) 내에서 만물은 상극(相剋)과 상생(相生)의 관계를 갖는다. 상극과 상생의 존재들의 관계 양식은 또다시 만물이 상보적(相補的) 관계 속에 있고, 다양성의 사회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해 준다 하겠다. 이 둘의 관계 양식은 이러한 맥락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전제한다. 상극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역으로 상생의 관계는 상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만물은 상보적(相補的)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어떤 존재도 고립된 독립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개체와의 맥락적 관계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작용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¹⁵⁾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氣)의 세계의 작용은 이(理)의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가하면 이(理)는 기(氣)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理)와 기(氣)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그렇다고 서로 섞이지 않는 즉, 이(理)와 기(氣)는 불상리(不相離)와 불상잡(不相雜)의 관계를 갖는다.¹⁶⁾ 이리하여 각 사물에서 이

14) 이 측면은 앞으로 필자가 복잡계 이론을 설명하면서 도입하는 양자역학의 개척자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절에서 설명 하듯이 그의 ‘상보성 원리’는 이러한 음양이론으로부터 견고한 이론적 바탕을 얻는다.

15) 이러한 논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보어의 상보성 원리, 특히 디랙의 양자역학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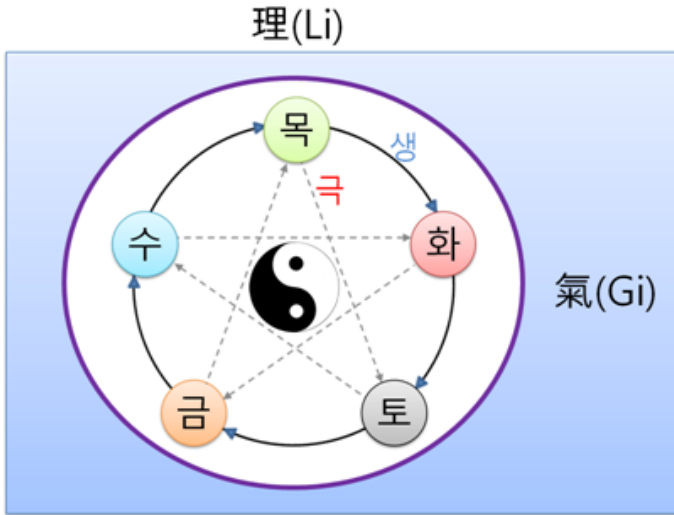
16)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새문사 2015), 98-103쪽; 윤사순, 『성리학』 (한국

(理)는 기(氣)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氣)는 이(理)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호 작용의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갖게 된다. 즉, 성리학에서 이(理)는 절대 원리이면서 또한 이렇게 기(氣)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기(氣)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즉, 개별 사물들의 이(理)는 기(氣) 속의 음양(陰陽)의 끊임없는 작용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개별 사물 속의 이(理), 본질적인 이(理)는 같은 것이다. 이리하여 각 개별의 사물들은 다양성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이(理)를 통해 공통점을 갖고, 상호 연결된다.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진 이러한 우주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理)와 기(氣)의 관계에 기초한 우주의 질서를 또한 인간의 본성이 갖는다.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이치와 같다. 성리학(性理學)의 성리(性理)는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이치와 같음을 뜻한다. 이러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이기(理氣) 이론은 다양성의 만물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이 논리 체계에 따르면 전체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부분을 나타내 준다. 우주 전체 속에서 부분인 인간이 우주를 나타내 주는 것과 같다. 전체인 우주는 부분인 인간 속에서 반영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사상 체계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뜻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의 연쇄 작용은 궁극적으로 우주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성리학은 이러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의 우주 질서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유체계라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Stephen C. Angle, Sagehood: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neo-Confucia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그림 1 (필자의 도해)



위의 그림은 음양(陰陽)의 태극(太極)이 중간에 있어서 음(陰)과 양(陽)의 상호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우주 만물을 뜻하는 오행(五行)이 발생하며, 오행 각 요소들은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관계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오행의 상생관계는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임을 그림은 보여준다. 상극 관계는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처럼 목은 수와 그리고 화와 상생의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토와 그리고 금과 상극의 관계를 갖는다. 목은 수에 의해 살림을 받고 화를 살

린다. 목은 토를 극하고 금에 의해 극된다. 상생의 관계와 상극의 관계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을 둘러싼 상생의 관계와 원 내부의 별표로 이루어진 상극의 관계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에 질서를 이루며 항존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체계의 속성에서 상생과 상극의 상호 작용과 조화는 매우 중요하게 설정된다. 상생 속에 상극이 있고, 상극 속에 상생이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음(陰)과 양(陽)의 관계와 같은 상보성(相補性)의 관계다. 상극과 상생의 조화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극을 상생으로의 개념’에 해당한다. 일상에서의 이러한 개념은 구체적으로 말해 상극과 상생의 조화된 경지를 말한다. 상극을 없애고 상생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화의 경지는 예를 들어, 다음에 설명할 격물치지(格物致知), 거경함양(居敬涵養), 활연관통(豁然貫通) 등 인간의 학문과 마음의 수양,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2)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이러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성리학의 이일분수(理一分殊)가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주 가운데 이(理)는 하나이고 기(氣)는 수없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러한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기(氣)의 다양한 형질 때문에 이 결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이일분수(理一分殊)라 한다. 결국 기(氣)의 다양성 그리고 그에 따른 기(氣)와 이(理)의 결합이 다양하여 세상의 존재들은 저마다 다양한 성격과 특질을 갖는다.¹⁷⁾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드는 이 결합의 방식에서 기(氣)의 성격에 따라 이(理)의 부분이 덜 드러날 수도 더 드러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사람 존재 전체

17)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새문사 2015), 130-146쪽; Stephen C. Angle, *Sagehood: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neo-Confucia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의 작동을 관장하는 이(理)의 힘이 약할 수도 또는 강할 수도 있다. 이는 이 사이에 덜 현명하고 또는 더 현명하고 하는 자질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 수양을 통해 이(理)의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고, 관장하는 힘을 크게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수양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기(氣)에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음(陰)과 양(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오행(五行, five elements), 즉 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이 생성된다. 이 오행은 우주 만물을 상징한다. 그리고 오행의 각 요소들 사이에 또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즉 상극적인 그리고 상생적인 상호작용, 상극과 상생의 조화작용이 이루어진다. 즉, 기(氣)는 제 요소들의 끊임없이 역동적인 상호 구성의 과정 속에서 존재하며 이(理)와 결합하여 개체를 이루는데, 이 개체는 다른 개체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맺음의 본원적 원리로서, 즉 우주의 본질로서 하나의 이(理)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일분수(理一分殊)는 ‘분수(分殊)’에서 ‘이일(理一)’로 향하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역동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이일(理一)’에서 ‘분수(分殊)’로 작용하는 방향만이 논의되어 왔다. 하나의 이(理)가 존재하고 그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하나의 근본 질서의 원리 속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각 개체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이 하나의 고정된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리하여 성리학의 세계관은 신분제적 전체주의 사회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실제의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일분수가 정명론(定命論)과 연계되어 신분제적 전체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왕과 관료제의 신분 사회에서 그렇게 적용되었던 것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명론은 직분과 직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18)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143-146쪽.

사회는 고정된 각 신분에 의거한 전체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개체들이 끊임 없이 상호 작용하는 역동적인 변화 속에 있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 속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다.¹⁹⁾ 전 우주에 걸쳐 이(理)는 하나로서 변하지 않기에 이러한 이(理)의 존재 원리에 의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결되고, 공통점, 즉 보편성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연결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일분수(理一分殊)에서 ‘분수(分殊)’로부터 ‘이일(理一)’로 향하는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氣)의 역동성 속에서 사물은 변화하고 다른 사물과 역동적인 관계 맺기를 하고, 끊임없이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면서 하나의 이(理)로 향하기 때문이다.²⁰⁾ 그런데 이

19) 이처럼 우주의 체계 속에서 다양한 존재들의 상호작용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일분수(理一分殊)는 그동안 정명론(定命論)과 함께 차별성의 이론적 근거로 많이 해석되어 왔다. 실제로 역사에서 남존여비(男尊女卑) 등 차별과 배제의 정당성 원리로 많이 작용하였다.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이와는 달리 본의(本意)에 맞게 풍요롭고 역동적인 “끊임없는 다양성의 통일 원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정명론(定命論)은 이름에 맞는 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함’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당시의 계서제적 차별성이 아니라 오늘날 직분과 직업의 다양성으로 해석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의 정신과 제도와 맞물려 그 본의(本意)를 충분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이 정명론(定命論)과 함께 신분적 계서제(階序制, hierarchy)를 뒷받침 한 것은 당시 전통 시대에 기득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의적 해석의 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이렇게 해석되는 성리학의 이 일일분수(理一分殊)는 불교의 인드라망 원리와 비교될 수 있다. 인드라망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불교의 연기설(緣起說) 및 인연설(因緣說)이 비롯된다. 인드라는 부처님이 현생하기 전 수양을 돕던 인도의 신이었다. 그런데 그의 방에는 매듭마다 구슬이 달려 있는 망(網, 그물)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구슬들은 서로를 비추어주고 각 구슬의 의미는 다른 구슬들의 조명에 의해 존재한다. 성리학의 이 일일분수(理一分殊) 사유 틀이나 불교의 인드라망이 그 상징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 일일분수(理一分殊)나 인드라망 개념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복잡계 이론과 큰 유사성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초 연결 사회를 만들어 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와 복잡계 이론을 설명하는데, 이일분수(理一分殊)나 인드라망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인드라망 개념이 오늘날 인터넷에 의한 초연결 사회를 위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불교전문가들의 다음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재호, 『인터넷 세상, 인드라망이 주는 메시지』, 『불교신문』 2014.02.11 10:59,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28>; 그레이엄 프리스트 교수 / 박은주 취재·정리 (2015.07.01.), 『인터넷만큼이나 강력한 인드라망의 세계』,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 (통권 제179호 2015.7.); 曹勇吉, 『佛敎의 生命그물과 生態環境 倫理觀의 인드라망』, 『韓國佛敎學』 (36輯 2004.2.); 신용국, 『인드라망의 세계 : 유기체

(理)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기(氣)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작동을 위한 하나의 원리다. 이(理)와 기(氣)는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각 개체는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 전체가 이(理)와 기(氣)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성리학에서 부분은 전체를 나타내 주고, 전체는 부분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²¹⁾ 이(理)는 자연의 원리, 도덕의 기준, 지향 가치, 가장 표준적인 것, 끊임없는 표준으로서의 지향가치로 볼 수 있다. 이(理)는 기(氣)가 이루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의 역동성에 대한 방향성 또는 지향점을 상징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기(氣)는 이(理)의 원리에 따라 체계 관계 요소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달리 표현하여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으로 작동한다. 이리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우주는 끊임없는 역동 속의 변화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주는 어떤 한정된 고정된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영원성을 상징한다. 음(陰)과 양(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태극(太極)의 원리가 이를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태극은 무극(無極)이다. 이는 태극이 다함이 없는 무궁무진의 영원성 성격을 상징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겠다. 필자가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에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른 구성주의’를 말할 때, ‘끊임없는’은 영원성을 뜻한다.

성리학의 이렇게 해석되는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정부분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相補性) 원리, 카오스 이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잡계 이론의 홀론 구성, 자기조직화 원리와 비교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이론들의 토대 위에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분단극복 정책,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를 관통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보편적인 사유의 틀로서 조명해 볼 수 있겠다.

세계, 인식자로서의 인간: 관계론적 존재관과 세계관의 조망』, (하늘북, 2003); 이시우, 『연기(緣起)와 우주인드라마』, (종이거울, 2015).

21)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카오스·복잡계 이론의 프랙탈, 홀론 개념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3) 성리학의 방법론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진 인간은 수양을 통해 이(理)의 존재를 더욱 드러낼 수 있다. 인간의 수양 행위를 이(理)가 관장한다. 그러기에 수양을 통해 이(理)의 존재를 더욱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수양 행위로서 거경함양(居敬涵養)은 항상 조신하고 근신하는 생활 속에서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격물치지(格物致知), 또는 격물궁리(格物窮理)는 사물을 대하여 그 이치를 깨달아 가는 공부·학습을 말한다.²²⁾ 그런데 거경함양(居敬涵養)과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두 성리학 방법론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거경함양(居敬涵養)의 수양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격물치지는 거경함양을 통해 보다 본원적으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즉, 인간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지식의 축적은 거경함양(居敬涵養)을 통한 수양을 촉진하고, 거경함양(居敬涵養)을 통한 수양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한 지식의 축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함양(居敬涵養)을 통해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은 개별의 사물들을 관찰하고 이치를 깨닫는데, 이러한 과정의 끊임없는 축적을 통해 보편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하여 보편의 원리 관점에서 개별을 파악할 수 있는 직관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직관 능력으로 개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행위를 활연관통(豁然貫通)이라 한다.²³⁾ 활연관통(豁然貫通)은 다양한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보편성에서 다양한 개별성으로의 인식의 전이(轉移) 원리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연관통(豁然貫通)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원리에 의거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물은 이일분수의 원리에 의해 상보성의 관계를 갖는다. 어떤 존재도 고립되고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개체와의 관계, 상호 작용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개체들 사이의 맥락 관계가 중요하

22)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208-231쪽.

23)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새문사 2015) 234-242쪽.

다. 이 상보성의 이일분수 원리는 다양한 개체들 사이의 맥락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함양(居敬涵養)을 통해 이일분수에 의거한 이 상보성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거경함양(居敬涵養)을 통한 수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양한 개별성의 인지에서 보편성을 파악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보편성에서 다시 개별성으로 이르는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과정은 마음의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거경함양(居敬涵養)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경함양(居敬涵養)의 수양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구성 행위이다. 필자가 보기에 인식대상과 인식주체 사이의 격물치지(格物致知)와 활연관통(豁然貫通)은 앞에서 설명한 구성주의 이론의 구조와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구성 과정에 비교될 수 있다. 앞에서 필자는 구조와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구성을 전제하는 구성주의 이론은 구조가 행위자의 인식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구조와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구성 과정은 ‘개념적 구성 (conceptual construction)’ 과정에 해당한다.

격물치지는 인식주체의 기(氣)속에 들어 있는 이(理)와 인식대상 사물의 기(氣)속에 들어 있는 이(理)의 만남이요,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이 축적되고, 거경함양(居敬涵養)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인식주체의 이(理)를 더욱 드러나게 할 수 있고, 이(理)와 기(氣)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인식 주체의 존재를 고양시킬 수 있다. 이는 또한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경지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개체와 개체 사이, 개체와(부분과) 전체 사이의 상보성(相補性)과 ‘끊임없는 다양성의 통일’ 원리로 해석될 수 있는 이일분수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의 불확정성(不確定性) 원리에서처럼 관찰 대상은 관찰자의 영향을 받게 되고, 관찰 대상에 대

한 지식은 관찰자의 지식을 새롭게 구성한다. 보어는 이를 상보성(相補性)의 관계로 설명했다. 이러한 상보성(相補性)의 원리에 따라 관찰자와 관찰대상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카오스 이론과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한 필자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더욱 생각해 본다. 이를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에 적용하여 설명해 볼 수 있겠다.

3. 복잡계 이론과 ‘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

복잡계(複雜系) 이론은 세상의 복잡한 현실과 그 작동을 결정론적인 원인과 결과의 논리 관계로 환원(還元, reduction)시키지 않고 본래의 모습대로 인식하고자 한다. 뉴턴 이래의 고전 역학의 핵심 내용이 모든 자연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결정론적으로 환원하여 파악하는데 있다고 할 때, 복잡계 이론은 이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복잡계 이론은 복잡성 과학이라고도 칭해진다. 복잡성 과학에 따르면 자연 및 인간 세계에서는 규칙과 불규칙, 질서와 무질서 등이 혼재 되어 있고, 혼돈 중에 질서가 있으며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하여 수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 작용하며,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형성된다. 예를 들어, 복잡계에서는 제 요소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에 의거하여 입자가 파동이 되고, 파동이 입자가 된다.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quark)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쿼크가 되는 상전이(相轉移) 현상이 일어난다. 복잡계 이론이 실효성을 갖게 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연의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통해 세상의 복잡한 양상을 현실 그대로 포착해 갈 수 있게 되면서 부터다.²⁴⁾ 복잡성 과학은 무수한 변수들의 관계와 상호작용 과정을 첨단 기술로 포착하여 무질서와 질서의 혼

24) 김용운·김용국, 『제3의 과학혁명.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서울: 우성, 1998초판/2000중판), 16-34쪽.

돈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고 예측하고자 한다.²⁵⁾ 그리하여 복잡계 이론에서 고전 역학의 학문에서와는 다르게 상대적이고 확률적인 지식이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인구에 회자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다.

복잡계 이론은 1970년대부터 물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²⁶⁾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²⁷⁾ 복잡계 이론에 따르면 만물은 복잡한 체계 속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고,²⁸⁾ 그 연계되어 있는 고리의 각 개체, 즉 각각의 부분들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전체를 이룬다. 이 전체는 새로운 전체를 위해 새로운 부분이 된다. 그리하여 이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운 개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즉,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새로운 개체의 탄생을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역동성을 뜻한다. 이렇게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수행하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다른

25) Steven Johnson, *Emergence: The connected Lives of Ants, Brains, Cities, and Software*, Scribner 2001; 번역본: 스티븐 존슨 (김한영 옮김), 『이머전스』, 서울: 김영사 (2004); 윤영수·최승병,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문조, 『복잡계 패러다임의 특성과 전망』, 『과학기술연구』, 3권 2호(2003); 스투어트 카우프만 (국형태 옮김), 혼돈의 가장자리, 2002, 사이언스북스.

26) 예를 들어, I. Prigogine, *From Being to Becoming: Time and Complexity in the Physical Sciences*, (San Francisco: W.H. Freeman & Company 1980); I. Prigogine & I. Stengers, *Order out of Chaos*, Bantam Books 1984, 신국조 역,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서울: 고려원 1993).

27) Mark Buchanan, *The Social Atom*, (김희봉 옮김), 『사회적 원자』, (사이언스북스, 2007); 박광기, 『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집 2호 2009); 권세은,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2004); 박근서, 『소통환경의 변화와 복잡계 이론 - 사회변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8-2 2012); 『Chaos 理論에 입각한 自己組織化 조직의 特性과 組織成果의 分析: 公社 組織의 比較, 研究』, 『한국행정학회』, (28-4 1995); 윤영득, 『복잡계 디지털경제의 문화콘텐츠 산업구조』, 『문화산업연구』, (11권 1호 2011); 이광모·장순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2002 월드컵 거리응원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2004); 안민호, 『시정행위의 복잡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7-3 2009).

28) Albert-László Barabási, *Linked: How Everything Is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and What It Means for Business, Science, and Everyday Life*, Albert-László Barabási, *Network Science*; 필자가 볼 때, 이러한 저작들은 마치 앞에서 설명한 이일분수(理一分殊), 인드라마과 같은 개념들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 같다.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적인 관계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개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혹은 새로운 개체를 홀론(holon)이라 부른다. 홀론은 이처럼 전체이면서 새로운 개체, 즉 새로운 전체를 위한 부분을 말한다.²⁹⁾ 그런데 이 전체이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운 개체인 이 홀론은 또다시 다른 개체들과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낸다. 끊임없이 새로운 홀론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홀론들은 끊임없는 계층 서열적 구조(hierarchy)를 이룬다. 이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반영한다. 복잡계 이론은 이 세상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홀론을 만들어 내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창발(創發, emergence)의 과정이라 부를 수 있다. 창발은 ‘창조적 발현’을 뜻한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한 이러한 창발의 홀론 생성 과정을 개체들의 지속적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홀론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조직화 과정은 단순한 원인 결과로서 결정적으로 환원(還元, reduction)되어 설명되지 않고, 그 양상이 대단히 복잡하다. 이렇게 자기조직화를 이루어 가는 서로 다른 개체들, 혹은 대립되는 개체들은 창발을 위해 상호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들로서 인식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분법적이고 결정론적인 설명과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는 다음에 설명할 양자역학의 개척자 보어(Niels Bohr)의 상보성(相補性) 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관계망(關係網)으로 존재하는 자연과 인간 세계의 수많은 요소들의 자기조직화 원리에 의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다양한 생성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망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고정된 진리와 정체성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양성의 존중과 상호 작용 그러면서 조화와 균형,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원리가 실천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29) Holon은 전체를 뜻하는 holos와 부분을 뜻하는 on의 합성어로 되어 있으며, 전체이면서 부분인 것을 뜻한다. 이를 영국의 소설가 쾨슬러(Arthur Koestler, 1905-1983)가 조어(造語)했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앞에서 살펴 본 구성주의 이론과 성리학 세계관의 융합으로서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이 복잡계 이론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과 지속적인 홀론의 형성으로 설명되는 ‘창발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조직화 과정’의 자연과 인간 세계를 다루는 복잡계 이론 사이에 일맥상통함을 발견한다. 즉, 음(陰)과 양(陽)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오행(五行)의 상극(相剋)과 상생(相生)의 관계가 복잡성 과학에서 파악하는 자연과 인간 세계의 모습과 커다란 상징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 본 구성주의 이론이나 성리학 세계관, 그 융합으로서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은 추상적 사유의 논리지만, 복잡계 이론은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실체적 관찰과 실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은 복잡계 이론을 통해 현실 세계적인 타당성의 관점을 얻고, 복잡계 이론은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넓고 깊은 사유의 지평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러한 사유체계와 과학적 이론들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의 고정된 질서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존재와 작동을 위해 서로 다른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적인 것들의 존재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세상 만물은 변화와 역동적인 조화의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과 인간 세계의 원리에 주목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서로 다른 것,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적인 것들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평화와 인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자 이명현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상호배타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어온 부분과 전체의 근대적 범주도 이제 설 곳이 없어졌다. 그것은 전체의 구조를 내재한 부분(개체)과 전체의 구조를 인식하는 개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근대적 형이상학적 개념은 현실적 적합성이 없다. 자유는 개체의 활성화의 원리로, 평등은 전체의 균형의 원리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 근대적 경성국가(硬性國家)가 사라져 가는 국경없는 세계경제시대에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문법이 요청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 정복과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맞물림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양은 맞물림의 전형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적 모순과 부정의 사유로부터 벗어나 맞물림의 관계를 통한 더불어 있음의 새로운 차원의 사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³⁰⁾ 필자가 보기에 다음 장에서 설명할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사상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복잡계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해와 더불어서 평화와 인권의 원리로 이해하고 추진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복잡계 이론이 출현하기 까지 서양 과학사에서 보면, 19세기부터 상호 작용과 끊임없는 변화의 원리, 확률적 본질 인식 등의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식물학자 브라운(Robert Brown)은 실험적 발견을 통해 1827년에 ‘물질은 원자들 사이의, 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과정 속에서 존재 한다’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액체나 기체 속에서 소립자들이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³¹⁾ 그는 이를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으로 명명하였다. 오늘날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은 전자들의 끊임없는 부딪침의 상호 작용으로 얻어지는 점광(点光)들에 의해 작동한다. 러더퍼드(Ernest Rutherford)와 소디(Frederick Soddy)는 방사성 원소가 변환됨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이를 통해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 상태에 있고, 움직인다’라는 명제를 1902년의 발표에서 제시했다.³²⁾ 그런가하면 1862년 클라우지우스(Rudolf Julius Emanuel Clausius)는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Entrophie), 즉 무질서의 증가 현상을 발견하였다. 자연세계에 대해 확률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엔트로피 개념은

30) 이명현 외,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철학과현실사, 1998), 10-11쪽; 소광섭, 『보어의 상보성원리』, 『과학사상』, 18 (1996.8), 186-187쪽.

31) Robert Brown: "A brief account of microscopical observations made in the months of June, July and August, 1827, on the particles contained in the pollen of plants; and on the general existence of active molecules in organic and inorganic bodies." In: Philosophical Magazine. Vol. 4, 1905, pp. 161 - 173.

32) David Lindley (박배식 역), 『불확정성 - 양자물리학. 혁명의 연대기 그리고 과학의 영혼을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마루별, 2007), 51-52쪽.

특정 상태에 대한 확률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상태의 무질서함을 나타내 주는 척도이기도 했다. 이는 통계역학으로 정립되어 갔다.³³⁾ 이러한 과학사의 흐름 속에서 20세기 초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mechanics, quantum physics, quantum theory)이 자리 잡아갔다. 양자역학 바로 전에는 과학사의 일대 혁명으로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및 특수 상대성 원리가 제시되었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물체의 위치와 속도의 측정에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다. 빛은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은 에너지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물체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물체는 객관적으로 실재(實在)함을 강조했다.³⁴⁾ 뉴턴 이래의 고전역학에서는 에테르(Ether)라는 공간의 절대 기준이 상정되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부정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관찰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빛, 물체의 속도와 위치가 다르게, 즉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특수 상대성 원리를 수립했다. 그는 빛처럼 빠른 물질에서는 상대성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작동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고 본질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³⁵⁾ 그러나 그 현상이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침을 지적했다. 복잡계 이론은 크게 보아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相對性) 원리, 위에서 설명한 통계역학, 앞으로 설명할 양자역학(量子力學), 카오스(chaos)³⁶⁾

33) David Lindley (박배식 역), 『불확정성』, 33-37쪽.

34) 그는 다음에서 보어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바, 빛이 파동과 입자로 되어 있다고 보지만 ‘상보성(相補性)의 원리(Principle of Complementarity)’를 강하게 반대했다. David Lindley (박배식 역), 『불확정성』, 174-180쪽.

35) Albert Einstein, *Relativity: the special and general theory*, Crown Publishing Co. 1961, (김중오 역), 『상대성 이론』, (미래사 1992); David Lindley (박배식 역), 『불확정성』, 77-80쪽; 소광섭, 『특수상대성 이론의 자연철학적 고찰』, 『과학사상』, (1998 봄), 155-160쪽.

36) 페르 박 (이재우, 정형채 옮김),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복잡계로 설명하는 자연의 원리』, (서울: 도서출판 한승 2012); 알버트 바바라시 (강병남, 김기훈 옮김), 『링크』, (서울: 도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자역학은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으로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외부 궤도를 도는 전자와 같은 물리적 독립체의 최소 단위로서 양자(quantum)의 힘의 작용과 관계를 다루는 학문 이론이다. 보어(Niels Bohr),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 같은 양자역학자들이 양자(量子)가 빛처럼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양자로서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되어 있고, 이 입자와 파동은 상호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 대립적인 관계의 입자와 파동은 전자의 존재와 작동을 위해 서로 불가결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관찰자가 입자 측면을 보게 되면 파동 측면을 볼 수 없고, 파동 측면을 보게 되면 입자 측면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입자와 파동은 이 양자(量子)의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상호 관계를 가지는 두 요소였다. 또한 양자의 위치와 속도는 상호 배타적이어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위치를 측정하다보면 속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속도를 측정하다 보면 위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측정 과정에서 관찰자의 관찰 도구 및 관찰자의 영향이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즉, 그들은 양자의 본질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도구의 영향 속에서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또한 강조했다. 그러한 양자의 모습은 관찰자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된다.³⁷⁾ 이렇게 볼 때, 양자(量子)에 대한 이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인 양자와의 개념적 구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역학의 이러한 측면이 앞에서 설명한 기든스가 말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적 구조화 이론과 매우 큰 유사성을 보인다.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을 말하는 구성주의 인식론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 도출된 양자역학의 원리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점은 매우 흥미

서출판 동아시아 2005); 김승환, 『카오스와 복잡계과학의 선구자들』, 『중앙일보』, 입력 2002.02.25 13:06 수정 2005.12.06 00:33, <http://news.joins.com/article/938084>;

37)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관찰자에 따라 이러한 관찰 대상인 양자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양자역학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유신, 『(닐스 보어 타계 50주기) 양자물리학자이며 철학자, 닐스 보어』, 『지식의 지평』 12 (2012. 05), 237쪽.

롭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렇듯 입자성과 파동성, 위치와 속도 등을 동시에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측정 과정에서 관찰자와 관찰 도구의 영향이 작용기 때문에, 양자를 오로지 확률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불확정성(不確定性)의 원리 (Principle of Uncertainty)'로 명명하였다.³⁸⁾ 이렇게 확률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양자역학이 성립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어는 이러한 양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위치와 속도의 상호 대립성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호 관계를 1927년 상보성(相補性)의 원리 (Principle of Complementarity)로 설명했다.³⁹⁾ 그것은 물질이 상보적 관계의 서로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존재는 인간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존재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었다.⁴⁰⁾ 이리하여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모든 자연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일정하게 환원된다고 보는 서양 고전역학(古典力學)에 도전하여 근본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보어는 이러한 양자(量子)에 대한 이해, 즉 양자역학을 고전역학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이 두 역학사이에 상보성 원리를 적용하여 단절을 피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⁴¹⁾ 양자를

38) Werner Heisenberg, *Physik und Philosophie*, Berlin 1973.

39) 소광섭, 「보어의 상보성원리」, 『과학사상』, 18 (1996.8), 183쪽; David Lindley (박배식역), 『불확정성 - 양자물리학. 혁명의 연대기 그리고 과학의 영혼을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마루별 2007), 156-180쪽; 장희익, 이종원 등, 『양자. 정보. 생명』, (한울아카데미 2015); N. Bohr, *Atomic Physics and Human Knowledge*, New York: Science Editions 1961.

40)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사이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는데, 보어는 이러한 양자역학을 고전역학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다. 이것이 두 역학 사이의 개념과 원리들을 맵핑(mapping)시키는 그의 대응원리였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는 이에 반대했고, 고전역학과는 완전 독자적으로 양자역학을 정립해 가고자 하였고, 자연과학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David Lindley (박배식역), 『불확정성』, 161-168쪽.

41) 소광섭, 「보어의 상보성원리」, 『과학사상』, 18 (1996.8), 182-183쪽; 김유신, 「(닐스 보어 타계 50주기) 양자물리학자이며 철학자, 닐스 보어」, 『지식의 지평』 12 (2012. 05), 235-237쪽; Ruth Moore, *Niels Bohr: The Man, His Science, and the World They changed*, The Mit Press 1985.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전의 통계역학의 입장 등과 연계되었다. 이는 고전역학의 인과성과 결정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연을 확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현상이 나타나고 본질은 불변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입장과 본질이 변한다는 양자역학의 관점은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⁴²⁾

이러한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은 대립적인 두 요소가 공존하면서 존재를 이룬다는 것이지, 그들이 상호 작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복잡계 이론처럼 새로운 것을 창발해 낸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포괄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의 다음과 같은 관점은 상호 구성적 입장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린들리는 이와 관련한 측면의 하이젠베르크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준다. “당신은 입자의 속력이나 위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둘다 측정할 수는 없다. 혹은,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될수록 속력은 덜 정확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다. 좀더 간접적이고 덜 명확하게 말하자면, 관찰 행위는 관찰되는 물체를 변화시킨다.”⁴³⁾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을 집필·편찬하고 그 제목을 『부분과 전체 (Der Teil und das Ganze)』라고 명명했다. 그는 부분과 전체에 대해 상호적 관계에서 설명했다. 그들은 상호 작용의 가치에 대해 양자역학 자체에서는 아니지만 여러 맥락에서 선각자적으로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들의 사상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유들이 만났을 때 가장 풍요로운 발전들을 이루었다.”⁴⁴⁾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각각 상보성과 불확정성의 원리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의 철학적 관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이 각각 상호 대립관계에 있으며, 상호 작용하면서 조

42) 김유신, 『(닐스 보어 타계 50주기) 양자물리학자이며 철학자, 닐스 보어』, 『지식의 지평』, 12 (2012. 05), 231-233쪽.

43) David Lindley (박배식 역), 『불확정성』, 14쪽.

44) Werner Heisenberg, *Physik und Philosophie*, Berlin 1973, pp. 156-157.

화를 이루고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호 작용과 변화의 우주 질서가 작동하는데 로고스가 있다고 했다. 이는 마치 동양 사상에서 우주 질서 원리의 근본으로서 태극(太極), 이(理), 도(道)가 상정되어 있는 것과 같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헤라클레이토스를 넘어 동양의 전통적인 음양사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자역학을 이러한 동양 사상과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보어는 1937년 중국을 방문하여 실제로 동양 사상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7년 그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게 되었을 때, 가문의 문장 중앙에 태극 마크를 그려 넣고,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contraria sunt complementa)’ 라는 글귀를 라틴어로 써넣었다. 이를 통해 그는 세상은 대립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의 조화 속에서 존재함을 천명하고자 했다.⁴⁵⁾ 카프라(Fritjof Capra)는 후에 양자역학을 주역, 음양사상, 태극, 도교, 불교, 성리학의 개념들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⁴⁶⁾

45) Niels Bohr, *Atomic Physics and the Description of Nature*. Cambridge 1934, p. 57; Fritjof Capra,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pp. 159-160.

그림 2 (Fritjof Capra, *Ibid.*, p. 161)

양자역학자 닐스 보어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고 만든 보어 가문의 문장



46) Fritjof Capra,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이성범, 김용정 옮김), 『현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디랙(Paul Dirac)은 사물이 물질과 반물질로 되어있고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밝혔다. 디랙은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 대해 깊은 감동을 보냈고,⁴⁷⁾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꾸준히 노력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전자(電子)가 그와 전기적 부호가 반대인 반전자(反電子)의 물질을 갖고, 이를 통해 전자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에 따르면 양성자(陽性子)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반대되는 반양성자(反陽性子)의 물질을 가졌다. 물질과 반물질은 상호 작용을 하는데, 양성자는 반양성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각 물질은 개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를 맺으며 맥락을 형성하는 가운데 존재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자는 다른 전자와 반전자들과의 맥락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작동했다. 그는 진공(眞空)이란 것도 물질과 반물질의 짝이 무수히 생성 소멸되면서 상호 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⁴⁸⁾ 물질과 반물질, 즉 이러한 전자와 반전자 같은 대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을 하는 서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계를 상보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다. 디랙은 보어가 과학적 발견에 기초하여 철학적으로 정립한 관점을 자연 세계의 현실로 실험을 통해 증명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디랙이 과학적으로 발견한 원리는 성리학의 음양오행이기(陰陽五行理氣),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철학적 원리와 매우 큰 유사성을 보여 준다. 우리가 격물치지(格物致知), 또는 격물궁리(格物窮理), 거경함양(居敬涵養), 활연관통(豁然貫通)을 통해 보고 깨달아야 할 사물의 이치가 바로 디랙(Paul Dirac)이 보어의 상보성 원리를 이어 받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낸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물질과 반물질의 상호 작용'일지 모른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리학적 구성주의'의 의미를 복잡계 이론과의 융합 속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자역학 이론들의 궤적이 후에 등장하는 카오

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사 1989).

47) 소광섭, 『보어의 상보성원리』, 『과학사상』, 18 (1996.8), 181쪽; David Lindley (박배식 역), 『불확정성』, 160-161쪽.

48) 소광섭, 『특수상대성 이론의 자연철학적 고찰』, 『과학사상』, (1998 봄), 150-151쪽.

스 이론들과 접합되고 복잡계 이론으로 수렴되고, 자연 세상에서 발생하는 상보성의 원리에 의한'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물리학자 김유신의 다음과 같은 진술과 연동하여 이해해 볼 수 있겠다.“이 상보성을 물리적 세계와 윤리, 사실과 가치, 미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등에 적용하면 우리는 모순을 겪지 않고 세계의 여러 측면을 모두 기술해낼 수 있다.”⁴⁹⁾

카오스 이론의 정립은 1961년 기상학자 로렌츠(Edward Norton Lorenz)의 관찰과 함께 태동된 것으로 소위 '나비 효과'⁵⁰⁾에 대한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⁵¹⁾ 로렌츠는 기상 관측의 값들을 관찰하면서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 함수적으로 변하여 복잡하고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이론화하면서 그는 현실 세계에서 같은 원인에 대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종래의 고전 역학적 원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실 세계에서 미세한 차이도 없는 똑 같은 원인(原因)을 투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는 단순하고 결정론적인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성립되지 않는 복잡성이 주요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불규칙적인 복잡성 속에서도 엄밀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규칙성을 보여주는 패턴이 존재했다. 그는 이렇듯 무질서와 질서가 공존하는 세계를 카오스(chaos, 혼돈)라고 했다.⁵²⁾

불규칙한 복잡성 속에서 보이는 반복되는 규칙적인 패턴을 프랙탈(fractal)이라 한다. 카오스 이론은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찾아내는 연구 작업의 원리다. 침

49) 김유신, 『(닐스 보어 타계 50주기) 양자물리학자이며 철학자, 닐스 보어』, 『지식의 지평』, 12 (2012. 05), 237쪽.

50) 글릭은 로렌츠가 발견한 나비효과를 기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지성 날씨에 관한 한 - 세계의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국지성이라는 것은 폭풍우일 수도 있고 심한 눈보라일 수도 있다 - 어떠한 예측도 정확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오차와 불확실성은 연속적인 난기류를 통해 계속 증폭되어 모래바람이나 스콜을 워싱턴이 포착할 수 있는 대륙만 한 크기의 회오리바람으로 발달시킬 수도 있다.” James Gleick (박래선 번역), CHAOS. Making a new science (『카오스- 새로운 과학의 출현』), (동아시아출판사 2013), 48쪽.

51) 김용운, 김용국, 『제 3의 과학혁명.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우성 1998, 2000년 중판).

52) James Gleick (박래선 번역), op. cit., 50-61쪽.

단의 정보 기술의 도움으로 반복되는 프랙탈을 추적하고, 측정하여 분석한다. 프랙탈의 형성 과정은 여러 제한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프랙탈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복잡성의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카오스 전문가들은 세상의 존재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로 규명될 수 없는 불규칙한 상태, 즉 혼돈 상태에 있고, 여러 변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구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주장한다.⁵³⁾

그런데 인터넷, 사물인터넷 등으로 무수한 정보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인류 사회 전체가 더욱 복잡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복잡계 이론은 이러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앞의 카오스 이론에 기초하여 무수한 변수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카오스 및 복잡계 이론은 고전역학(古典力學)이 엄밀한 인과 관계에 의거한 선형성(線形性), 결정론을 전제하는 데 반해, 단순한 인과 관계 성립을 부정하고 비선형, 비결정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카오스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복잡계 이론은 시스템 과학⁵⁴⁾을 구축하고 또한 동시에 그 영향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카오스 이론이나 복잡계 이론을 동양의 전통적 사상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설명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자에 카오스 및 복잡계 이론을 도교와 불교의 원리와 연계하여 연구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⁵⁵⁾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성리학 사상 체계를 이 복잡계 이론과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전통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원리를 융합하였고,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실질적 조직, 정치 질서 등

53) I. Prigogine, *From Being to Becoming: Time and Complexity in the Physical Sciences*, (San Francisco: W.H. Freeman & Company 1980).

54) 박창근, 『시스템학』, (서울: 범양출판사 1997); 박창근, 『시스템학이란』, 『과학사상』, (2002년 겨울).

55) Fritjof Capra,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김용운, 『카오스와 동양사상』, 『물리학과 첨단기술』 (10, 2001); 김용운, 『카오스와 불교』,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1); 김순금, 『원불교 인과론의 시스템적 해석』, 『법한철』, 13(1998); 이광모·최창현, 『도가 사상과 카오스 이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2003).

을 우주론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강조한 바, 이러한 사상적 노력들이 현실에서는 정치, 사회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명분으로 해석되고 실현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왜곡되어 실현되는 측면들이 많았다. 양자역학의 철학, 복잡계 이론 등과 함께 성리학 세계관을 다시 검토하고 오늘의 가치체계에 맞게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즉, 이들은 오늘의 가치체계 속에서 재해석되고 사회적으로 그에 부합하게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영국의 과학사가 애덤스(Henry Adams)는 과학적 분석과 통합을 말하였는데, 이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의미했다. 그는 '과학적 통합', '과학적 분석'이 상호 작용해야 함을 설파했다.⁵⁶⁾ 과학적 통합은 통일성을 말하고, 과학적 분석은 다양성을 말한다고 했다. 성리학에 대한 재해석 과정도 '다양성 속의 통일' 과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과 복잡계 이론의 융합적 적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를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융합적인 인식 속에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한국의 분단극복, 세계의 평화를 상보적인 원리 속에서 추진해 갈 수 있다.

56) Henry Adams, *The Education of Henry Adams*, Boston: Houghton Mifflin, 1961, p. 431.

Ⅲ. 브란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에 기초한 유럽연방주의와 동방정책, 그 유산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원리

필자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 브란트의 연방주의 유럽통합 사상과 정책, 냉전시기 동방정책과 사상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⁵⁷⁾ 브란트는 근본적으로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사상을 가졌다. 그는 서로 다른 것들은 대립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들로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사상을 앞에서 설명한 보어의 ‘성리학적 구성주의’, 상보성(相補性)의 원리, 복잡계의 자기조직화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정책이 독일의 나치 시대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과거청산 노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이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앞 장에서 설명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및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⁵⁸⁾ 이는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도 연계되어 있다.

필자는 브란트의 사상에 앞장에서 본 ‘성리학적 구성주의’ 및 복잡계 이론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개념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다고 본다. 브란트는 나

57) 노명환,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및 ‘공동의 안보’ 개념과 동방정책에 대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의 조명』, 『역사학연구』 제 65호, pp. 205-244; 노명환, 『빌리브란트의 망명시기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구성주의 시각』, 『역사문화연구』, 제53집(2015); 노명환,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기호학 이론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분단 극복 정책과 사상의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집: 동아시아 속의 분단 한국, 유럽 속의 분단 독일』(2015. 08).

58) 브란트는 1913년, 보어는 1885년,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태어났다. 모두 나치 시대를 겪었다. 브란트는 나치 시대에 망명 투쟁을 하였고, 보어와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혈통을 가졌고, 하이젠베르크는 나치시대 원자 폭탄 개발팀 팀장이 되었던 사실도 앞으로 그들 시대의 가치관과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치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망명 시기는 물론 전후 냉전시기의 정치가로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중요한 사회 구성과 동력의 원리로 설정했다. 그에게 있어서 ‘아’와 ‘타’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놓여 전쟁으로 치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여 풍부한 다양성 속의 통일 사회를 이루는 조건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된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통일체는 또 다른 개체와 또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 그런데 그 통일체는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다. 이러한 통일체는 부분과 상호 작용을 하며, 그 통일체는 다른 개체 혹은 통일체와 상호 작용한다. 끊임없이 이 과정을 이루어 간다. 이는 복잡계 이론의 끊임없는 홀론의 구성, 즉 창발의 실현을 의미하는 측면과 유사하다. 이러한 브란트의 사상과 정책은 그의 유럽연방주의와 동방정책에 잘 나타나 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브란트가 이러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에 현실적으로는 적(敵)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유지와 배양을 또한 전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적(敵)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했다. 이 점이 그의 사상과 정책을 비현실적인 이상성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브란트의 사상을 그의 유럽연방주의와 동방정책 사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유럽연방주의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브란트가 나치 정권을 피해 망명·저항투쟁을 하던 노르웨이에서 정립하기 시작한 평화 사상으로서 유럽연방주의에는 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Einheit in Vielfalt)’ 사유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⁵⁹⁾ 그는 각 국가의 정체성의 성격을 차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했다. 그는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이 다양성의 개념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9) "Der Traum von Europas Vereinigten Staaten", in: *Die Kriegsziele der Großmächte und das neue Europa*, verfaßt in: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1, Willy Brandt. *Hitler ist nicht Deutschland. Jugend in Lübeck Exil in Norwegen 1928-1940*, p. 480.

각 국가가 이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할 때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각 국가의 상이한 개별 정체성을 충돌과 전쟁의 원인이 아니라 상호 작용과 조화,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국제적 창조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국제 관계의 원리 속에서 그는 유럽의 국가들이 연방주의 유럽통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브란트에게 있어서 유럽연방주의는 유럽의 각 국가가 주권을 유럽연방에게 양도하고, 기존의 각 국가는 자치를 누리며, 외교, 국방 등 특정한 영역에서는 유럽연방이 통일적 정책을 수행하는 체제를 말했다.

그의 이러한 연방주의 유럽통합 사상은 나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였다. 그의 지속적인 나치 체제에 대한 반성은 특히 왜곡된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확립성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고, 대안으로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성에 집중되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성 사이의 상호 작용을 실현하는 제도적 틀로서 연방주의에 기초한 유럽통합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유럽연방의 실현은 유럽평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라 정체성 구성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운동을 전개해야 했다. 그리하여 유럽 각국의 정체성들이 유럽연방 속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유럽의 정체성으로 다양성 속의 통일을 이루어야 했다. 이것이 그의 유럽연방주의 사상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 유럽 국가들 사이의 다양성 속의 통일은 세계 국가들 사이의 다양성 속의 통일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유럽통합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해되어야 했다.⁶⁰⁾ 즉, 유럽통합은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세계통합을 위해서 열려있어야 했다.

이러한 그의 유럽연방주의 사상은 앞에서 설명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끊임없는 정체성 구성 과정에 대한 그의 사유의

60) Einhart Lorenz, *Willy Brandt. Deutscher-Europäer-Weltbürger*, Stuttgart 2012.

들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그는 각 개별의 정체성들을 대립과 적대의 원천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 조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는 고정된 불변의 ‘적의 개념’을 지양(止揚)해 가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사유가 나치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하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의 다음과 같은 유럽통합의 뜻에 대한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유럽통합에 대한 요구는 자신의 안보가 다른 사람에 대항한 싸움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원시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상을 내포한다. “61) 그리하여 그는 유럽 그리고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적(敵)의 개념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서로 대립되는 정체성은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지 고정불변의 적(敵)으로 규정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정체성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세계는 평화, 창조, 공동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러한 브란트의 유럽연방주의 사상에는 앞장에서 설명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복잡계 이론의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각 국가들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연계·융합하는 것을 뜻했다. 유럽 연방주의는 유럽 각 국가의 정체성이 상호 작용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관계와 과정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으로 닫혀 있지 않고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열려 있는 세계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특정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소유자를 죽이는 경우, 자연스러운 영웅의 행위가 되지만, 같은 유럽인의 정체성을 소유한다고 할 때, 이는 부자연스러운 살인 행위가 된다. 여기에서 영웅 행위인지 혹은 살인 행위인지의 판단은 정체성의 성격과 연관된다. 살인해야 하는 적(敵)인가? 아니면 살인해서는 안 되는 인격체인가? 는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문제이다.

61)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d. 1, p. 480. 노명환, 「빌리브란트의 망명시기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구성주의 시각」, 『역사문화연구』 (제53집 2015.2), 317~346쪽.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개념을 갖는가가 중요하다. 즉, 정체성은 개념적 구성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리에는 브란트가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대한 핵심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브란트의 사유는 정체성의 변화가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구성주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또는 대립되는 정체성들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겠다.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통해 브란트가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각 국가 그리고 전체로서의 유럽 간의 상호 관계 및 상호 작용을 또한 체계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겠다. 전체로서의 유럽 정체성은 부분인 각 국가의, 연방 내에서는 한 자치체가 될 수 있는 단위의, 정체성과 상호 작용한다.⁶²⁾ 이러한 차원에서 전체인 유럽은 각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 문제와 같은 부분의 문제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알자스-로렌 지역,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폴란드 회랑' 지역 문제 등을 국가 간의 관계로서 일 때와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차원에서 각 국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성리학의 이일분수(理一分殊) 이론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겠다. 복잡계 이론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의 네트워크, 상호 작용, 창발, 홀론 구성 등의 개념들이 또한 브란트의 위와 같은 평화 사상을 조명하는데 매우 유익할 수 있겠다.

유럽 정체성은 유럽 각국들의 정체성의 합일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새로운 창조적 발현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된 유럽연방의 유럽정체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로서 복잡계의 이론에서 보면 홀론(hol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홀론은 각 국가 정체성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창발(emergence)'의 결과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 내에서 전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구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새

62) Claudia Hiepel, "Europakonzeptionen und Europapolitik", in: Rother, Bernd (hrsg.), *Willy Brandts Außenpolitik*, Wiesbaden 2014, p. 25.

로운 창조. 이것이 브란트 유럽연방주의 평화 사상의 요체였다. 그런데 유럽연방은 세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유럽연방의 홀론은 다른 지역의 정체성과 상호 작용을 하여 세계 공동체의 홀론을 이룬다. 그런데 브란트에게 있어서 세계는 구체적으로 지구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다양성의 차원에서 상호 작용하고 마치 홀론으로서 새로운 통일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상호 작용의 결과 완성된 결과물을 고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 않고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는 다양한 정체성들의 관계와 상호 작용 과정, 즉 역동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복잡계 이론을 빌려 말한다면, 브란트는 창발을 통해 홀론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복잡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유의 틀로서 브란트는 국가 간의 전쟁, 제국주의, 파시즘 같은 체제들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풍요롭고 역동적인 다양성의 국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는 나치 시대의 망명지인 노르웨이에서 유럽통합의 의의를 모든 국가들의 생존권과 이해관계를 존중할 줄 아는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서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유럽통합의 가치는 종래에 ‘아’와 ‘타’의 투쟁 속에서만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⁶³⁾ 이것이 ‘다양성 속의 통일(Einheit in Vielfalt)’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호 구성 과정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역으로 이러한 상호 구성 과정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⁶⁴⁾ 브란트에게 있어서

63) “Der Traum von Europas Vereinigten Staaten”, in: Die Kriegsziele der Großmächte und das neue Europa, verfaßt in: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1, Willy Brandt. *Hitler ist nicht Deutschland. Jugend in Lübeck Exil in Norwegen 1928-1940*, p. 480.

64) 전후에 브란트가 추진한 유럽통합 정책 그리고 독일의 분단 극복 과정은 이러한 그의 평화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통합과 분단 극복이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차원에서 정

평화는 목적이며 또한 동시에 수단이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이고 수단이었다. 역으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 평화가 가능했다. 그는 예를 들어, 1987년의 사민당 당수직을 사임하면서 행한 고별연설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해주었다.⁶⁵⁾

유럽연방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었다. 브란트는 유엔 산하 남북위원회 위원장(1977-1983)으로서 지구의 부유한 북반구와 가난한 남반구 사이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럽의 정체성을 넘어 세계의 정체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브란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따른 실질적 활동이었다.

“시민계급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우주(세계)적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유럽의 국가 시스템의 설립을 추동했다. 시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는 식민지와 판매시장을 위한 싸움의 도구가 되었다. 기술적 발전들을 통해 민족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서로 대결하게 되었다. 민족주의 원칙은 우리 시대의 야만적인 민족주의, 인종광기, 국제적인 강패 행위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주의는 민족들 간의 상호 이해, 국제 협조에 대한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남아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한다: 인권과 자유가 한 민족의 특정 그룹들에 혹은 특정 민족들 중 한 민족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민족들, 인격체인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⁶⁶⁾ 그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민주적인 국가에서는 갈등이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체성의 끊임없는 상호 구성 과정을 말하며, 그는 모든 사회적 존재는 끊임없는 상호 구성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65)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in der Bonner Beethovenhalle am 14. Juni 1987", Bedeutende Reden Willy Brandts,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Berlin.

66) Berliner Ausgabe Band 2, pp. 218-219.

로 국제 정치에서도 다양한 의견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⁶⁷⁾ 이는 ‘지속적인 다양성 속의 통일’을 잘 나타내준다.

그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특별히 노동자운동과 사회주의에서 보았는데, 이는 그의 초기의 사상과 활동에 기인한다. “민주주의의 세계적 차원의 목표는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자운동, 사회주의에 의해 추진되어 오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자 계급은 국가의 지배계급에 대하여 투쟁한 시민계급에 의해 자극을 받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국제적인 평화 프로그램과 함께 제기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인종의 평등, 동등권, 협력, 형제애를 설파했다.”⁶⁸⁾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의거한 국제기구, 국제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의 협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제 재판소가 필요하다.” 그는 이것이 전 세계의 번영과 민주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라 보았다.⁶⁹⁾ 그는 유럽의 한 국가의 안보 이해관계와 전체 유럽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지속 사이의 오래된 대립 관계는 유럽 차원의 단결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⁷⁰⁾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는 이러한 대립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⁷¹⁾ 그는 이러한 제국주의 이해관계가 극복될 때, 국가적인 독립과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유럽 공동의 기구 사이의 협력이 쉬워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유럽의 구성 국가의 주권이 유럽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방해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각 개별 국가의 주권을 유럽 전체의 공동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은 각 국가의 자유와 자치에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⁷²⁾ 그는 또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국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각 개별 국가

67) Berliner Ausgabe Band 2, p. 219.

68) Berliner Ausgabe Band 2, p. 219.

69) Berliner Ausgabe Band 2, p. 219.

70) Berliner Ausgabe Band 3, p. 480.

71) Berliner Ausgabe Band 3, p. 480.

72) Berliner Ausgabe Band 3, p. 480.

들의 결정은 그 국가가 전체 국가 사회의 일원임을 명심하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⁷³⁾ "부분의 문제는 전체의 틀 속에서 풀 수 있다. 전체는 부분의 끊임 없는 관계와 상호 작용 (Miteinander) 속에서 이루어진다."⁷⁴⁾ 그래서 그는 한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연방주의 제도의 실현에 있다고 했다.⁷⁵⁾ 관리되는 병존에서 상호 교류 협력의 공존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유럽연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2) 동방정책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전후에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 서독 수상으로서 분단 극복을 위해 개발한 동방정책(Ostpolitik)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근간을 두었다. 이는 서독과 동독이 서로 다른 주체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작용을 통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Einheit in Vielfalt)'로서 새로운 독일을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했다. 우선적으로 그는 이러한 상호 작용의 원리를 통해 동서독 관계에 변화를 이루고, 새로운 독일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교류와 협력의 접근을 통해 상대방 지역(동독)의 변화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서독)의 변화를 또한 의미했다. 그는 1969년 수상이 되어 동방정책 실현의 의지를 밝히면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 실현 (mehr Demokratie wagen)'을 서독인들에게 주문했다. 동독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깊은 민주주의로 서독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동독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독 자신도 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는 동방정책을 동서독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변화의 정책 (Politik der Transformation)'으로 명명했다. 그는 동서독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독일을 탄생시킴으로써 분단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고

73) Berliner Ausgabe Band 3, p. 480.

74) Berliner Ausgabe Band 6, pp. 445-455.

75) Berliner Ausgabe Band 1, pp. 474-475.

자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유럽통합의 과정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추구 속에서 분단된 독일은 물론 그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독일의 역할과 연계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재통일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독일의 창조적 구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창조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독일의 나치 유산으로서 갖게 된 분단의 고통인 서독과 동독 사이의 대립관계를 상호 작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실현하고자 했다. “전통적인 국민 국가적 방법으로는 독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Bündnis) 속에서만 가능하다. 미래에 안보시스템, 공동체 등 중요한 문제는 연합(Bündnis) 밖에서 중요한 정치적 해결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민족 국가적인 전통적인 의미에서 다루어 질수 없다. 다만 유럽 차원의 평화 질서를 위한 단계적인 노력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⁷⁶⁾ 그는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통일의 유지를 찬성한다 (Gegen Nationalismus, für Erhaltung der nationalen Einheit)”⁷⁷⁾는 그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유럽의 국경은 분리를 의미한다. 이것을 연합으로 만들어야 한다.”⁷⁸⁾ 이와 연장선상에서 그는 “우리의 민족적 이해는 서방이나 동방 사이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라는 서방과 협력과 일치 그리고 동방과 상호 이해를 요구한다.”⁷⁹⁾고 했다. “오로지 통합된 독일의 외교정책이 있다. 서방정책과 동방정책 사이에 대립이 없다.”⁸⁰⁾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서독과 동독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 동독을 국제법상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⁸¹⁾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동독은 이것을 요구했다.⁸²⁾ 동독은 1950년에 오더-나이제 선을 폴란드와의 평화적 경계선

76) Berliner Ausgabe Band 6, p. 257.

77) Berliner Ausgabe Band 3, p. 171.

78) Berliner Ausgabe Band 6, p. 257.

79) Berliner Ausgabe Band 6, p. 257.

80) Berliner Ausgabe Band 6, p. 257.

81) Berliner Ausgabe Band 6, p. 250.

82) Berliner Ausgabe Band 6, p. 252.

으로 인정했고, 서독도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했다.⁸³⁾ 그는 대립 관계 속에서 공통점을 찾고, 공동의 책임을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나의 확신에 의하면 모든 본질적인 대립 상황에서도 공존과 공생의 형태들을 찾는 모든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⁸⁴⁾ 그는 이러한 관점을 1962년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하버드대학 연설에서 “모험에 대한 강제(Zwang zum Wagnis)”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그 다음 해에 책으로 펴냈다.⁸⁵⁾ 브란트는 현상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립과 협력을 녹여내는 전체의 조화 속에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동독(독일민주공화국, DDR)과 서독(독일연방공화국, BRD)의 독일문제 해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연계와 신념에서 서방에 결속되어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연계와 지도자들의 의지에 의해 동방에 결속되어 있다. 이것들은 실제의 현상이고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우리 국제사회 전체가 병존(Nebeneinander)과 교류와 협력의 공존(Miteinander)을 추구하는, 즉 대립으로부터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동독이나 서독이 함께 해내야 할 과제가 있다.”⁸⁶⁾ 이와 함께 그는 “관리되는 병존을 넘어서 공존으로 가는 것은 독일의 이해관계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동서 냉전의 세계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⁸⁷⁾는 점을 제시했다. 브란트는 공존(Miteinander)을 동서독 사이에서만 아니라 유럽으로, 세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독일의 과제를 ‘지속적인 좋은 이웃들 사이의 독일 민족 만들기 (ein Volk der guten Nachbarn in Kontinuität)’로 표현했다. 그가 동방정책의 실시를 선포하는 1969년 10월 28일 수상으로서의 정부선언과 “우리는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로 좋은 이웃을 가진

83) Berliner Ausgabe Band 6, p. 252.

84) Berliner Ausgabe Band 6, p. 263.

85) Willy Brandt, *Koexistenz-Zwang zum Wagnis*, Stuttgart 1963; Brandt 1972, pp. 80-89.

86) Berliner Ausgabe Band 6, p. 262. 관리되는 병존(Nebeneinander)은 대립관계이면서 갈등과 전쟁을 피하는 관계의 상태를 말한다. 공존(Miteinander)은 교류와 협력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평화와 다양성 속의 통일 상태의 지향을 말한다.

87) Berliner Ausgabe Band 6, p. 250.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⁸⁸⁾ 1970년 1월 중간 설명 (국가 상황보고)에서 그리고 1973년의 정부 선언⁸⁹⁾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달리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브란트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속에서 분단된 독일의 동·서독 사이에 내재할 수 있는 적(敵)의 개념을 지양(止揚)하고, 교류와 협력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이 브란트가 추진한 동방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를 복잡계 이론에 비추어 설명해 보면, 서독과 동독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창조적 발현을 이루어 내는 것이었다. 성리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럽과 세계의 차원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변화의 정책 (Politik der Transformation)’ 등을 이러한 개념들과 이론들에 연계하여 살펴볼 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동방정책은 앞에서 설명한 그의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일관된 연장선상에 있었다. 부분의 정체성, 부분에 대한 충성은 전체에 대한 해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부분에 해가될 수 있다. 부분과 부분의 조화 부분과 전체의 조화가 중요했다.

구체적으로 브란트는 동독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상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 1민족 2국가론을 전개하였다. 당시 동독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영구 분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그런데, 그는 장기적으로 독일연방주의를 모색했고, 분단된 각 독일의 부분문제를 독일연방이라는 전체의 비전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연방은 유럽연방의 체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독일연방의 실현은 유럽연방과의 연계 속에서 그리고 그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일연방주의 비전은 또한 앞 절에서 설명한 유럽연방주의 사상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고, 유럽연방주

88) Berliner Ausgabe Band 6, p. 246.

89) Berliner Ausgabe Band 6, p. 446.

의 안에서 독일연방주의 비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유럽 연방주의에 의거한 유럽통합 정책과 독일의 분단 극복 정책을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고 추구하고 추진했다.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통한 동서독의 변화는 유럽으로, 세계 공동체로 연계되어야 했다. 이는 '끊임없는 다양성의 통일 원리'를 통해, 즉 '아'와 '타'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란트의 평화 사상으로서 동방정책 사상을 조명하는데 있어서 앞장에서 설명한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복잡계 이론의 적용에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위해 이러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적용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적(敵)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의 유지와 배양을 또한 전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통해 개념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적(敵)의 개념을 없애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서독 내부의 경제·사회 발전과 서독을 포함하는 서유럽통합의 발전, 미국 등 동맹국과의 신뢰 갖는 우호 관계를 의미했다. 이는 브란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의한 동방정책을 '현실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험한 이상향(理想郷)의 정책'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3) 브란트의 유산으로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평화적으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전의 앞면처럼 연결된 브란트의 연방주의 유럽통합 정책과 동방정책의 상호 작용 효과를 떠올렸다. 나치 시대에 대한 강한 반성에서 서독이 유럽 각국과 상호 존중을 통해 유럽통합을 추진하고, 동독과 서로를 인정하면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던 정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동서독 사이 그리고 독일과 유럽 국가들 사이 추진되었던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조화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 냈다. 즉, 필자가 제안하는 개념인, '성리학

적 구성주의'원리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다.

통일된 독일의 미래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보성과'다양성 속의 통일'원리에 토대를 둔 유럽통합의 심화 속에서 자리 매김을 해야 했다. 그래서 통일된 독일은 서독이 그동안 공들여 온 유럽통합의 심화, 즉 유럽연방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유럽 차원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참여 민주주의의 공동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다. 통일된 독일이 나치 시대처럼 획일성과 일방성의 가치에 의한 강대국 지향의 문화에 젖어서는 안 되었다. 나치 시대에 대한 청산을 지속적으로 강인하게 이어 나가야 했다. 이것은 이웃 나라들과 약속한 독일통일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통일된 독일에서'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브란트의 평화 사상이 계속 이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분단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보성과 자기조직화,'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원리에 기초한 브란트의 평화 사상은 독일인들에게 중요한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즉, 필자가 제시하는'성리학적 구성주의'개념이 독일인들의 사유 체계의 주요한 부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1등 국민(서독 지역)', '2등 국민(동독 지역)'의 개념이 보여주듯이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서독 통일의 후유증은 사회의 성숙한 통합을 어렵게 했다. 통일된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그리고 당시 독일이 처한 경제적인 여건과 세계적인 변화의 상황으로 커다란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야기하는 대립과 충돌을 상보성과'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원리로 통합을 이루어 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오히려 독일인들은 대립과 충돌을 상호 작용, 창발의 원동력으로'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즉 '끊임없는 성리학적 구성주의'를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사 속에서 독일인들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갈 수 있었다.

통일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서독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 시대를 접하면서 구조적인 도전을 맞이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적인 장인정신(匠人精神)과 정밀 기계 공업 기술에 토대를 둔 제조업이 정보·통신 기

술이 확산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갔기 때문이다. 이 도전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2000년대 초를 지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들을 이끄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첨단기술·경제 경쟁력으로 인해 절박한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의 뜻으로 독일인들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인 제조업에 적용하면서 초 연결 사회를 주도해 갔다. 독일인들은 이 초 연결 사회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원리, 즉 필자가 제시하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왜냐하면 이 초 연결 사회는 끊임없이 대립과 충돌 및 갈등을 만들어 내었다. 이 초 연결 사회는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복잡계 이론에서처럼 대립되고 상충하는 제반의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발의 가치를 만들어 내어야 했다. 그리하여 한 사회의 경쟁력은 이 초 연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과 충돌 및 갈등을 여하히 끊임없이 조화의 창발로 발전시켜 내는 가가 관건이었다.

독일인들은 전통적 제조업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그리고 이에 따른 초 연결 사회의 복잡성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과제와 현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명명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개방과 공유, 연계와 융합의 정신과 시스템으로 최고로 효율적인 경제·사회 체계를 구축하고,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했다. '이기주의(利己主義)적 이타주의(利他主義)', '이타주의(利他主義)적 이기주의(利己主義)'라는 사회 도덕적 모토가 등장했다. 그들은 보다 많은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 속에서만 이를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보다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초 연결 사회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플랫폼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시스템을 활성화 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⁹⁰⁾ 산업4.0, 노동4.0, 교육4.0이 이러한 노력들을 대변해 준다.⁹¹⁾ 이러한

90) 남유선, "그 중심에 개방형 의사소통 시스템이 있다", 원대신문 2015.05.24., <http://www.wk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05>.

91)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김인숙/ 남유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서울: 호이테북스 2016) 참조.

측면에서 볼 때,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독일인들의 노력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개방·참여형 의사소통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고, 독일의 전후 참여 민주주의 전통은 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⁹²⁾ 즉, 빌리 브란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과거청산, 유럽통합, 동방정책의 독일 현대사는 개방형 의사소통 플랫폼에 의거한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를 위해 첨단기술이 관건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본다. 예를 들어, 그들은 경영자와 노동자의 합의로 노동 시간과 임금 관련하여 공유정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노동 시간을 나누면서 단축된 노동시간을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효율성을 통해 획득된 수입의 증가가 줄어든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독일내부에서만 머무를 수 없으며, 유럽차원으로 세계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가 초연결사회로 조직되는데 있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측면을 브란트의 유산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브란트의 유산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후 독일의 전반적인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브란트의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정책 그리고 전후의 동방정책이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한 정책과 사상은 후임 정부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통일 후

92)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불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찬국,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현대유럽철학연구』, 제46집, 313-348쪽; Jay David Volter (김상우 옮김), *Turing's Man: Western Culture in the Computer Age* (튜링스 맨. 컴퓨터 시대의 문화 논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김재영, 『2차 르네상스: 인간 자유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이민화, 『호모 빌리언스』, (서울: 북콘서트 2012).

에도 통일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독일 현대사에서 독일인의 가치체계, 즉 문화의 중요한 토양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IV.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복잡계 이론으로 보는 김대중의 평화 사상 및 햇볕정책과 현재 한국의 남북관계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주는 시사점

김대중은 평화 사상의 핵심으로서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통일정책의 이념적 기초로서 그는 민족주의를 상정했다. 평화 통일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켰다. 그는 단힌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열린 민족주의, 민주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의 민주주의 실현의 지역적, 내용적 단위와 차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세계의 민주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는 ‘다양성 속의 통일’ 개념 속에서 변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유라시아 공동체 개념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초국가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적 틀로서 발전되어 갔다. 개념적 구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은 그의 평화 사상과 햇볕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그의 평화 사상은 개방과 공유, 연계와 융합을 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 그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볼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과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1.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복잡계 이론으로 보는 김대중의 평화 사상 과 햇볕정책

1) 김대중의 민주적 민족주의 개념과 평화 사상

김대중은 일제시대, 분단시대를 겪으면서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는 한국의 통일정책의 기초는 민족주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993년 한 대학교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우리 통일의 기초는 민족주의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사상이나 계급적 이해나 혹은 지역적 차별이나 문화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세에 의해 3·8선으로 두 동강남으로써 분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마땅히 우리 힘에 의해서 다시 원상 복귀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세가 자기 멋대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통일은 외세에 의한 귀속과 강제분단을 청산하는 작업입니다.”⁹³⁾ 앞 장에서 보았듯이 브란트는 독일의 왜곡된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 독일분단의 원인이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문제(Deutsche Frage)’의 핵심에 독일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의 극복은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김대중의 경우 견고한 민족주의의 힘으로 외세에 의한 귀속과 강제분단을 청산하는 작업이 분단 극복의 과정이고 방법이었다. 이렇듯 두 사람은 각자 자신 국가의 분단 원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이 민족주의란 어휘 자체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브란트의 민족주의 개념은 악(惡)의 원인으로서 청산대상이었다. 이에 반해 김대중의 민족주의는 선(善)을 위한 지고한 가치의 이념을 의미했다. 빌리 브란트는 민족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추구하면서 타

93)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서울: 한길사, 1994), 196-197쪽.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독일의 민주주의 투사였고, 김대중은 독일과 유사한 제국주의 정책을 편 일본에게 식민지 피해를 받은, 그 이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국에서 활동한 민주주의 투사였다. 브란트는 망명시절 나치 등장의 원인으로서 반인륜적 범죄의 원인으로서 민족주의 문제를 고민했고, 대안으로서 연방주의 유럽통합을 추구했다. 전후에는 분단의 원인으로서 민족주의 문제를 깊이 성찰했다. 김대중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식민지 정책을 경험하고, 전후에는 외세에 의한 분단을 경험했다. 그는 민족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고,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이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의 구조에 기인했다. 즉, 그들의 민족주의 개념의 차이는 독일과 한국의 역사 경험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김대중이 민족주의를 이렇게 강조한 것은 민족 정체성의 근원에 대해서 본질주의(essentialism) 관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민족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 즉 구성주의 관점과 대립되는 입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대중은 앞에서 브란트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점차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상보성의 원리와 유사한 사상을 발전시켜 갔다. 그의 이러한 측면의 끊임없는 사유와 정책에 대한 고심의 궤적을 우리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김대중이 민족주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민족주의에는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남의 민족을 마구 침략하는 '외연적 민족주의'가 있고, 남에 대해서는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민족의 자주와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내연적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전자는 악이고 후자는 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연적 민족주의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⁹⁴⁾ 다른 곳에서 그는 유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과거 식민지국과 같이 자기민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제국주의적·확장지향주의적·외연적(外延的) 민

94)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198쪽.

족주의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민족을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와 독립 그리고 생존의 길을 얻고자 하는 정당한 자주적 독립 지향의 내연적(內延的) 민족주의이다.”⁹⁵⁾ 이미 1980년대 초 옥중에 있으면서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들을 통해 그는 민족주의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⁹⁶⁾ 그는 이 열린 민족주의를 ‘민주적 민족주의’로 이해했다. “민족주의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는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⁹⁷⁾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대중이 통일기조로 택한 민족주의는 ‘내연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민주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의 민족주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 본 브란트의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통일의 유지를 찬성한다 (Gegen Nationalismus, für Erhaltung der nationalen Einheit)”⁹⁸⁾라는 입장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브란트의 ‘민족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은 김대중 개념의 ‘외연적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민족적 통일의 유지를 찬성한다’는 것은 ‘내연적, 열린, 민주적 민족주의’를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김대중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를 추구할 때, “대외적으로는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킨다는 것은 여러 민족들 사이에 상호 존중을 통해 개별성과 다양성이 통일을 이루는 역동적 통합의 상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킨다는 것은 열린 민족주의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다양성 속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합의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즉, 열린 민족주의의 성격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상황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말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통합과 다양성이 병존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끊임없는

95)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91쪽.

96)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90-392쪽.

97) 김대중, 『옥중서신』, (서울: 한울, 2000), 315쪽. 『옥중서신』 개정 증보판이 2010년 시대의 창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출간 본을 사용한다.

98) Berliner Ausgabe Band 3, p. 171.

통일' 작용이 가능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열린 민족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내적 '다양성 속의 통일'은 대외적 '다양성 속의 통일'과 연계된다. 그는 한국인이 추구해야 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건설할 문화는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한 문화이다."⁹⁹ 이는 독립과 공존, 통합과 다양성, 대립적 관계의 상보적 원리에 의한 상호작용과 조화,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의 역동성 원리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의 관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의 사유체계는 빌리 브란트의 것과 유사하다. 김대중은 철학 및 각 관점들의 변증법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통일이 정적이고 기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했다.¹⁰⁰ 이러한 그의 시각은 앞에서 설명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원리, 구성주의 이론, 상보성 원리, 그리고 복잡계 이론에서의 자기조직화, 홀론의 구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설명한 성리학의 이일분수(理一分殊) 원리와 유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김대중이 정체성의 근원에 대해서 본질주의적 관점을 가지지만 끊임없이 구성주의 관점을 개발해 갔다고 본다. 필자는 김대중의 이러한 사유체계를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99) 김대중, 『옥중서신』, 349쪽.

100) 1980년 1월 7일 사형수로서 3남 홍길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서. 홍길은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학이나 철학을 전공하고자 했고, 사형수인 김대중은 그러한 아들에게 사회학과 철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조언을 주고자 했다. 김대중, 『옥중서신』, 33쪽. 그는 자신의 위와 같은 견해를 설명하면서 페이아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 신부의 '진화론적' 신학을 참고하기를 아들에게 강력 추천했다. 위의 논지들에서 페이아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페이아르는 우주진화론과 신학을 결합시켰다. 우주진화의 동력으로 그는 '사랑'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사랑'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으로서 복잡성(complexity)과 정신성(consciousness)의 진화를 견인했다. 이러한 그의 '사랑'의 개념과 우주진화론은 본 논문과 사유방식의 연계성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Pierre Teilhard de Chardin, trans. by Bernard Wall, *The Phenomenon of Man*, (New York: Harper & Row, 1959) 참조. 이러한 페이아르의 관점과 연계하여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필자에게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김대중의 평화 사상은 앞에서 브란트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민족,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원리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적의 개념을 없애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 가고자 했다. 즉, 김대중도 브란트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의 폐해를 넘어 지역 연방, 세계 연방을 추구하면서 국가들 사이의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통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방식의 창발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민족과 국가들이 배타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과 조화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만족하지 못했다. 국민국가 안의 민주주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국민국가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자기 국민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고, 남의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고,”¹⁰¹⁾ 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민족주의가 실현되는 국가가 다른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제국주의 현상을 지적했다. 즉, 그는 자신의 국가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면서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는 부정하는 국가 이기주의 현상에 주목하였다. 국가이기주의는 전체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반민주적인 것이었다.¹⁰²⁾ 그는 이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초국가주의의 정체성 단위를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발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역 연방의 민주주의’, ‘세계 연방의 민주주의’, ‘지구 민주주의’ 등 지속적으로 그 단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함을 강조했다.¹⁰³⁾ 그리하여 ‘국민국가 내에서의 민주주의’, ‘지역 연방 같은 체제 속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유엔 속에서의 세계적 민주주의’를 ‘다양성 속의 통일’ 차원에서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인 아시아 공동체로의 정체성을 확대함으로써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거한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자 하였

10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102쪽.

102)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102쪽.

103)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울 1995), 34-38쪽.

다. 그는 또 아시아와 유럽을 묶는 유라시아 민주주의 공동체를 구상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였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상보성 원리를 중시했으며, 이에 의거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추구했다. 김대중은 유교와 불교의 인(仁)과 자비(慈悲)의 정신과 도덕적 규범 같은 아시아의 사상들이 특히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상호 존중, 공존, 상호작용, 창발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⁰⁴⁾ 그는 민족주의와 인권의 민주주의 사상의 결합을 동학에서 찾았다. "우리 한국에서도 민족종교인 동학에서 그 창시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해야 한다(事人如天)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⁰⁵⁾ 이와 함께 동아시아공동체, 유라시아공동체, 세계공동체(world democracy community), 지구공동체(global democracy community)가 추구되었다. 정체성이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다. '정체성이'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로 새롭게 구성되어 가야 했다.

이처럼 김대중은 초기에 빌리 브란트와는 다르게 초국가주의 공동체 구성에 치열하지 않았으나, 점차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다.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통한 평화와 인권의 실현이라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대립적인 것들의 상보적 관계, '성리학적 구성주의',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는 아시아의 정체성과 유럽의 정체성이 유라시아라는 정체성으로 수렴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¹⁰⁶⁾ 이를 통해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해 내고자 했다.¹⁰⁷⁾ 실질적인 대상은 ASEM이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는 철의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를 제안했다.¹⁰⁸⁾ 특히 디지털 실크로드는 김대통령이

104)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6쪽.

105) 김대중,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한다. 1993년 12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자유민주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의 기조연설문,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511-512쪽.

106) 본래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러시아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김대중은 유럽과 아시아의 공동체를 유라시아로 그리고 있다.

107)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367-368쪽.

2000년 3월 유럽 순방 중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이미 제안하고 합의했었는데,¹⁰⁹⁾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대중은 다시금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유라시아 공동체, 민주주의 세계공동체를 넘어서서 글로벌(지구)민주주의 공동체를 제시했다. 인간과 자연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로서 글로벌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달리 표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그 철학 속에 담고 있다. 그는 이를 그의 신인도주의 사상으로 결집시켰다.¹¹⁰⁾ “이제 우리는 자국 내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간에도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도모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후세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구적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지구적 민주주의는 ‘일체 만물에 본성이 있다’고 한 부처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아시아의 전통에서 찾아질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이다.”¹¹¹⁾ 이러한 김대중의 민주주의 평화 사상을 필자는 상보성 원리,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홀론 구성의 원리와 같은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본다.

2) 햇볕정책

김대중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분단 상

108)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362-363, 498-499;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제30호, 2012.2), 168-170쪽.

109)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238-239쪽.

110)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5-408쪽; 노명환,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관관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49호, 2013.2), 231-234쪽.

111) 아태평화재단, 『아태평화포럼』, (1997년 6월호), 13쪽.

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추후에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과 남북연합, 연방국가, 단일국가의 3단계¹¹²⁾로 정립되는 개념과 정책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일을 자유, 민주, 평화의 대원칙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열린 민족주의, 적극적 평화주의, 전 지구적 민족주의의 개념들을 정립해 갔다. 이 중에서 특히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 창조’를 의미했다.¹¹³⁾ 그의 ‘평화 창조’개념을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분단 상황에서 남북사이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으로서는 적대감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적대감은 냉전체제와 분단체제의 불신과 증오에 기초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사유와 정책을 냉전체제와 분단체제를 화해의 정신으로 해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1998년 12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임동원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몹시 반겼다. 임장관이 자신의 생각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당시 임장관의 견해를 다음처럼 정리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대응요법적인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 구조에는 ‘남과 북의 불신과 대결’,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 ‘대량 살상 무기’, ‘군사적 대치 상황과 군비 경쟁’, ‘정전 체제’ 등 여섯 가지 요소가 엉켜 있다. 이러한 구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지난 반세기의 불신과 대결을 넘어 화해해야 한다. 다방면의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평화 공존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¹¹⁴⁾

112)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한울 1995).

113)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 연합을 중심으로』, (한울 1995), 35-37쪽.

필자는 앞에서 브란트가 상보성(相補性)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로 해석될 수 있는 원리에 의한 끊임없는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과 함께 적(敵)의 개념을 없애고자 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것이 브란트의 평화 사상과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앞에서 설명한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동방정책은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창발을 이루어 내는 평화 사상이요, 정책이다. 우리는 김대중의 위와 같은 민주주의 지역 공동체 사상과 햇볕정책이 브란트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잘 알려져 있는 바, 고대 그리스의 ‘이슈우화’에 나오는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가 하는 내기’를 하던 햇볕과 바람의 이야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바람이 아닌 햇볕이 행인의 외투를 벗길 수 있었다. 김대중은 냉전과 분단 시대에 바람을 대결과 압박, 전쟁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햇볕을 교류와 화해·협력, 평화의 상징으로 표상했다. 그리하여 그의 햇볕정책은 교류와 화해·협력,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그는 냉전시대에서 서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보았다.¹¹⁵⁾ 그는 이러한 햇볕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토양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중요시 했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반공을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을 꼽았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결여라는 관점에서 공산주의 이론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유물론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¹¹⁶⁾ 그는 한국전쟁의 경험과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 현실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의 위험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반공주의를 강화했다. 그는 브란트에게 보내는 한 서한에서도 자유를 위해 공산주의와 싸운다고 말했다.¹¹⁷⁾ 그러면서 그는 또한 진정한 반공주의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먼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에 기반해서 북한보다 우월한 체제를 갖추고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은 더욱 민주화되

114)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삼인 2010), 141쪽.

115)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85쪽.

116) 김대중, 『옥중서신』, 313-314쪽.

117)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illy Brandt Archiv,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3.

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시행하면서 서독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mehr Demokratie wagen)' 강조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각각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방 지역의 변화만이 아니라 자신 지역의 변화를 중시하고 상호 작용 속에서 추동해 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의 반공주의는 빌리 브란트의 것과 마찬가지로 멸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공산주의 사회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인정과 존중을 중시했다. 그 위에서 교류와 협력, 상호 변화, 공동의 미래를 창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것이 냉전과 분단의 시대에 그들이 추구했던 평화 사상이고 화해 협력의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홀론'의 구성과정처럼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의한 변화를 이루어 가고자 하였다.¹¹⁸⁾ 구체적으로 김대중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넓혀가고자 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북한에 확산되고 남한에서는 더욱 심화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앞에서 살펴 본 브란트의 '접촉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를 핵심으로 하는 동방정책과 유사한 점을 보였다. 필자는 이러한 끊임없는 접촉과 변화의 정책을 상보성 원리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홀론을 만들어 가는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표현하고자 한다. 김대중이 브란트의 사상과 정책에 깊이 동감하고 있었음은 아래와 같은 김대중의 브란트에게 보낸 서신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나는 당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들, 예를 들어 당신이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보여준 용기와 지혜, 시민당의 대중정당으로서의 긍정적인 발전, 대연정 정부에 참여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 유럽의 통합을 위한 노력, 세계의 공존을 상징한 동방정책을 위한 기초 작업에서의 당신의 업적, 나는 역사 속에 각인될 이 동방정책을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당신과

118) 노명환,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비교」,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229-236쪽.

당신의 업적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한 민족이지만 서로 간에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¹¹⁹⁾ 이 서신에서 김대중이 동방정책을 세계의 공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는 정치가로서 일찍이 이러한 평화사상에 기초하여 통일정책 추진을 주장하였고, 그의 평화통일 주장은 반공이 국시(國是)인 남한 사회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이 상황을 그는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공산주의는 멸공을 해야 하는데 공산주의와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해가지고 통일하자니까 너는 빨갱이 아니냐”¹²⁰⁾ 하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국시와는 다르게 멸공의 대상으로서 공산주의 북한을 상정하지 않았다.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은 상호 작용을 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간의 이해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가야 했다.¹²¹⁾ 이는 필자가 보기에 북한에 대한 개념적 구성을 통해 적의 개념을 없애고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와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을 의미했다. 이러한 개념적 구성, 즉 ‘성리학적 구성주의’를 위해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바 성리학 세계관에 기초한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거경함양(居敬涵養), 활연관통(豁然貫通)의 공부와 마음의 수양 방법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김대중은 멸공통일을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망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득이 안 돼요. 우리가 냉전시대의 타성 때문에, 뭐든지 북한이 나쁘다고 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습시다. 이제는 머지않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 북한이 조금이라도 잘 돼야 우리의 부담이 적고 또 같이 손잡고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¹²²⁾ 이는 북한을 동반자로 보는¹²³⁾ 개념적 구성의 입장이었다. 즉, 이는 북한에 대한 개념적 구성, 즉 구성주의 이론

119)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에게 1979년 10월 20일에 보낸 서한, Willy Brandt Archive, Aktengruppe: A 11.1, Signatur (alt): 93.

120)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201쪽.

12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121-122쪽.

122)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211쪽.

123)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21쪽.

적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하여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예를 나타내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적 구성이 남북 사이에 평화적 관계, 평화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력이었다. 이러한 그의 평화적 통일 사상은 앞에서 언급한 그의 3단계 통일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3단계 통일론은 이러한 개념적 구성을 통해 남과 북이 대립적 관계를 상보적(相補的)인 상호 작용의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김대중의 남북관계, 평화통일 정책을 ‘성리학적 구성주의’, 보어가 말하는 상보성 원리,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홀론, 창발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상호 작용을 위한 교류·협력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특히 현대라는 기업과 협력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민족의 동질성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고자 한 것으로서 독일에서도 없었던 독특한 성격의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기능적인 교류·협력 사업이었지만, 이는 남북한 사이에 화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민족동질성을 찾아주는, 즉 개념적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의 진행 속에서 상호 작용과 창발을 추구한다고 할 때,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그 의의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성리학적 구성주의’가 작동되는 틀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유라시아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인 통로, 매체로서 철의 실크로드와 정보(디지털) 실크로드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연결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평화와 인권을 위한 상호 구성 과정의 실질적인 고리가 되어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원리에 의한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과정과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리학의 세계관, 복잡계 이론에서 보듯이 세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 역동의 과정 속에 있다. 이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의 일단을 말해 준다. 우리가 이러한 차원 속에서 햇볕정책의 의의를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은 감정의 측면에서도 상호 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햇볕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향후 추진될 정책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햇볕정책이 현재 한국의 남북관계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주는 시사점

2017년 5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립 관계가 극에 달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성이 높게 자리 잡았다. 전쟁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큰 재앙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8년 들어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큰 전환을 이루어 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정책들이 협의되어 오고 있다. 김대중이 주장하고 추구하던 ‘일괄타결’의 정책들이 추진되며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사람들은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진전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 크게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독일인들이 이해하고 추진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혹 첨단 기술 개발과 효율성의 제고와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만 국한하여 이해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필자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시스템과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삶과 사회를 완전히 황폐화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의거한 초 연결 사회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독일의 경우처럼 참여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오웰(George Orwell)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예견한 ‘빅브라더’ 사회로 대변되는 무시무시

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 어떻게 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위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전후 독일 사회의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 특히 이에 기초하고 있는 브란트의 사상과 정책의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대립 관계를 가지면서도 상보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서로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하고 '창발(Emergence)'을 이루기 위한 서로 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필자는 보았다. 앞에서 브란트의 사상은 '성리학적 구성주의', 상보성 원리,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와 창발의 개념과 같이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독일인들은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에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로 유럽통합을 추구하고, 독일과 유럽에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그들 현대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어떠한 결과를 이룰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시스템 그리고 가치관이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을 포함 세계가 직면한 제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더욱이 과거 독일처럼 분단의 고통과 이웃 국가들과의 평화정착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의거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이와 함께 매우 효율적으로 평화와 분단 극복의 정책을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근본 뜻을 보다 실효성 있게 계승하여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디지털 실크로드 비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및 실천 방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상보성(相補性)의 원리, '성리학적 구성주의',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와 홀론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하는 것들의 상호작용' 원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의 디지털 실크로드 비전과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가 남북한 화해 협력 정책,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매우 유용한 인프라로

채택될 수 있겠다. 남북간에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분야와 방법에 있어서도 제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대중은 독일에서 시작한 제조업과 정보·통신 분야의 결합, 즉 산업 4.0을 독일보다 먼저 정책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열정적으로, 때로는 눈물겹게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IT 강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을 산업화해야 했다. 나는 전통 산업에 IT를 접목시킬 것을 주문했다.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 등에 IT가 녹아들었다.”¹²⁴⁾ 이러한 산업 기반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남북 경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초 연결 사회가 전개되고 있다. 개방과 공유, 연계와 융합이 근본 성격이고 가치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고립은 선택사항이 되기 어려운 국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북한이 추구해 온 ‘핵무기를 통한 고립의 보장’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을 가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독일식의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위해 협력하며, 소통과 나눔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길 바란다. 위에서 설명한 독일식의 제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남북한은 점진적으로 실효성 있게 소통과 협력의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한 관계에 중대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식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인 초 연결 사회의 진행 속에서 충돌과 갈등을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조화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는 훈련과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국제적인 초 연결 사회에서 남한은 물론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은 물론 북한도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 차원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충돌과 갈등을 넓고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도 있다. 초 연결의

124) 『김대중 자서전』 2, 446쪽.

세계에서 테러와 각종 범죄, 안보의 위협 등 그 위협성이 더욱 크게 증폭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남북 사이에 그리고 각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매우 위협스러운 상황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무가치성과 위협성을 깊이 깨닫고,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강화해서 조화와 상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발휘한다면, 남과 북은 세계적인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잘 적응하고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조직화와 홀론의 구성 및 창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류·협력의 대단히 유용하고 중대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를 다시 김대중의 ‘디지털 실크로드’ 개념과 연결할 때, 유라시아로 세계로 펼쳐갈 수 있겠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의 가치를 직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성숙한 자세의 노력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음을 단호하게 깨닫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남북한 관계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그만큼 한국은 세계적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 획득되는 민족적 차원의 조화와 상생의 능력은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남과 북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아시아, 유라시아,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과 평화, 공동의 번영을 위한 세계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의 ‘성리학적 구성주의’를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는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 상보성 원리, 복잡계 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자기조직화, 홀론, 창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개

념을 가지고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와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세상의 존재들은 서로 다른, 경우에 따라 대립되는 것들의 상호 작용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음양오행이기(陰陽五行理氣), 이일분수의 성리학 사상에서 그리고 보어의 상보성 원리, 복잡계 이론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과학적 실험에 의한 결과이기에 더욱 주목되고, 그가 자신의 과학 이론을 동양의 음양이론, 성리학과 연계시키려 했던 것은 매우 흥미롭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후에 카오스 및 복잡계 이론이 발전되어 가는데 중요한 사유의 틀로서 작용했다. 다양한 변수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창발, 자기조직화 원리를 이야기 하는 복잡계 이론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담고 있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 빌리 브란트의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동방정책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Einheit in Vielfalt)’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평화 사상과 정책으로서 햇볕정책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이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는 대단히 보편적인 사유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립과 갈등,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그 원리에 충실하게 실현해가기 위해서 융합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브란트의 사상과 정책은 독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환경과 역사가 우리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시사점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와 방법을 공유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성리학의 사상은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그에 기반한 서로 다른, 대립하는 것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구성 과정의 원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 브란트의 평화 사상으로서 유럽연방주의와 동방정책을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햇볕정책과 비교적 차원에서 보고자 할 때,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복잡계 이론의 개념들,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매

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한국의 현실이 상호간에 적대 관계로 발전하지 않게 하고,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대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 갈 필요가 있다. 서로를 적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의 개념으로, 그리고 상호 작용해서 창발을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계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창발(emergence)'을 이루어내 듯이, 우리는 남과 북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현되어야 한다. 동양의 전통에 기초하여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 맞게 재해석되는 '성리학적 구성주의'라는 개념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양태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근본 원리에 맞게 첨단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복잡계 이론의 자기조직화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 속에서 평화가, 인류 공영의 삶이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제4차 산업혁명의 근본 의의는 첨단 기술과 함께 끊임없는 진정한 소통 그리고 창발의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첨단 기술의 발전에 종속되는 경우 그것은 인류사회의 파탄을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복잡계 이론에서 볼 수 있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다.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철학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데 있다. 브란트 동방정책의 유산이 오늘날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유산을 분단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의 융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의 '디지털 실크로드'의 개념을 통해 분단극복은 물론,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의거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A. 한국문헌

- 권세은,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8권 1호 (2004).
-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한길사 1994)
-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2, (도서출판 삼인 2010)
- 김대중, 『옥중서신』, (한울 2000)
- 김문조, 『복잡계 패러다임의 특성과 전망』, 『과학기술연구』, 3권 2호(2003).
- 김순금, 『원불교 인과론의 시스템적 해석』, 『범한철학』, 13(1998).
- 김용운, 『카오스와 동양사상』, 『물리학과 첨단기술』 10 (2001).
- 김용운, 『카오스와 불교』, (서울: 사이언스 북스 2001).
- 김용운·김용국, 『제3의 과학혁명.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서울: 우성, 1998 초판/2000중판).
- 김인숙/ 남유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서울: 호이테북스, 2016 참조.
- 김재영, 『2차 르네상스: 인간 자유의 진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이민화, 『호모 모빌리언스』, (서울: 북콘서트 2012).
- 김택근, 『새벽: 김대중 평전』, (도서출판 사계절 2012).
- 노명환,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 및 ‘공동의 안보’ 개념과 동방정책에 대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의 조명』, 『역사학연구』 제 65호 (2017).
- 노명환, 『‘성리학적 구성주의’와 기호학 이론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분단 극복 정책과 사상의 비교』, 『역사문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집: 동아시아 속의 분단 한국, 유럽 속의 분단 독일』 (2015. 08).
- 노명환, 『빌리브란트의 망명시기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구성주의 시각』, 『역사문

- 화연구』, 제53집(2015).
- 박광기, 『복잡계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7집 2호 (2009).
- 박근서, 『소통환경의 변화와 복잡계 이론 - 사회변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8-2 (2012).
- 박찬국,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인가?』, 『현대유럽철학 연구』, 제46집 (2017), pp. 313-348.
- 박창근, 『시스템학』, (서울: 범양출판사 1997).
- 박창근, 『시스템학이란』, 『과학사상』, (2002년 겨울).
- 소광섭,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 (서울: 면도날 출판사, 2005).
- 안민호, 『시정행위의 복잡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7-3 (2009).
- 안유경, 『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새문사, 2015).
- 윤사순, 『성리학』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 윤영득, 『복잡계 디지털경제의 문화콘텐츠 산업구조』, 『문화산업연구』, 11권 1호 (2011).
- 윤영수·최승병,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이광모·장순희, 『복잡성이론의 적실성에 관한 사례 연구, 2002 월드컵 거리응원의 자기조직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2004).
- 이광모·최창현, 『도가 사상과 카오스 이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 (2003).
- 이민화, 『호모 모빌리언스』, (서울: 북콘서트 2012).
- 장희익, 이종원 등, 『양자. 정보. 생명』, (한울아카데미, 2015).
- 최창현, 유승동, 『Chaos 理論에 입각한 自己組織化 조직의 特性和 組織成果의 分析: 公社 組織의 比較, 研究』, 『한국행정학보』, 28-4 (1995).

B. 외국문헌

Bohr, Nils, *Atomic Physics and the Description of Nature*. Cambridge 1934.

Brandt, Willy,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in der Bonner Beethovenhalle am 14. Juni 1987", *Bedeutende Reden Willy Brandts*,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Berlin.

Bundeskanzler - Willy - Brandt-Stiftung(hrsg.), Willy Brandt, "Die Kriegsziele der Großmächte und das neue Europa," *Hitler ist nicht Deutschland. Jugend in Lübeck Exil in Norwegen 1928-1940* Berliner Ausgabe Bd. 1 (Bonn, 2002)

Capra, Fritjof, *Das Tao der Physik. Die Konvergenz von westlicher Wissenschaft und östlicher Philosophie*, Bern/München/Wien 1983.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Gleick, James (박래선 번역), *CHAOS. Making a new science* (『카오스-새로운 과학의 출현』), (동아시아출판사 2013).

Heisenberg, Werner, *Physik und Philosophie*, Berlin 1973.

Hiepel, Claudia, "Europakonzeptionen und Europapolitik", in: Rother, Bernd (hrsg.), *Willy Brandts Außenpolitik*, Wiesbaden 2014

Johnson, Steven, *Emergence: The connected Lives of Ants, Brains, Cities, and Software*, Scribner 2001; 번역본: 스티븐 존슨 (김한영 옮김), 『이머전스』, (서울: 김영사 2004).

Klotz, Audie/ Lynch, Cecelie,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오디 클로우츠/ 시
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Lindley, David, *Uncertainty: Einstein, Heisenberg, Bohr, and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Science* (박배식역), 『불확정성 - 양자물리
학. 혁명의 연대기 그리고 과학의 영혼을 찾아서』, (서울: 도서출판 마루
별 2009).

Lorenz, Einhart, *Willy Brandt. Deutscher-Europäer-Weltbürger*,
Stuttgart 2012.

Michael, Barnett,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Noh, Meung-Hoan,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S. Huntingtons
These: 'Zivilisationskollision' aus der Sicht von Sunghihak", in
Peter Nitschke (Hg.), *Der Prozess der Zivilisationen: 20
Jahre nach Huntington. Analysen für das 21. Jahrhundert*,
Berlin (Frank & Timme Verlag) 2014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한국어판: 알렉산더 웬트 (이옥연, 구갑우,
최종건 역),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2009).

〈국문초록〉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으로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 및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노 명 환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과 정책의 핵심은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실천하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적(敵)의 개념을 지양(止揚)하고자 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브란트와 김대중의 사유의 틀이 각각 유럽연방주의 사상과 동방정책, 글로벌 민주주의 개념과 햇볕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차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보아 존중하며, 서로 다른, 경우에 따라 대립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으므로 적(敵)의 개념을 지양(止揚)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평화 사상의 요체였다. 브란트의 경우, 그의 이러한 평화 사상은 전후 독일의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과 연계되어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도 전후 독일의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브란트의 유산이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동력으로서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를 설명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일제 식민지 시대, 냉전 및 분단 시대에 기초한 민족주의 이념과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했다. 그의 햇볕정책 속에 담긴 열린 민족주의, 적극적 평화주의, 전 지구적 민주주의 이상을 또한 ‘성리학적 구성주의’ 시각과 복잡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햇볕정책의 유산과 현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제를 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어 : 평화 사상, 빌리 브란트, 김대중, 동방정책, 햇볕정책, 제4차 산업혁명,
'성리학적 구성주의', 복잡계 이론

<Abstract>

The Peace Ideas and Policy of Willy Brandt and Kim Dae-ju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vism of Sunglihak and Complex Theory

Meung-Hoan Noh

The Peace Ideas and Policy of Willy Brandt and Kim Dae-jung we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unity in diversity' in continuity. Through the continuous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form of unity in diversity, Brandt tried to avoid the concept of the enemy. He tried to construct the concept 'We' in the dialectical mutual actions of the concept 'I' and 'You' continuously. That was the main stream and driving force of his peace thoughts expressed in his European Federalism and *Ostpolitik*. The author of this article see the principles of the unity in diversity in continuity in both Sunglihak and the Complex System Theory. So, the author tries to adopt Sunglihak and the Complex Theory for the systematic illumination of the peace ideas of Willy Brandt. He sees the fundamental contribution of the peace ideas of Willy Brand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Germany as the heritage. The Germa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he driving force of the principle of

the 'unity in diversity' based on the complex system theories and concepts. The author of this article sees the strong impulse for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Germany. He tries to study and explain the whole complex of these subjects and concepts, and their mutual relations.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jung represented his nationalism and democracy idea. In his concepts of the open nationalism, peace creation, global democracy, we see also the needs to adopt Sunglihak and the Complex Theory for the systematic illumination. The Korea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o have the driving force of the principle of the 'unity in diversity' based on the complex system theories and concepts.

Key words : Peace Ideas, Willy Brandt, Kim Dae-jung, Ostpolitik, Sunshine Polic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structivism of Sunglihak', Complex System Theory

투고일 : 2018년 7. 15 / 심사일 : 2018년 7. 23 ~ 8. 10 / 게재확정일 : 2018년 8. 20

필자소개 : 노명환-필자는 서양사 전공자로서 냉전시대의 역사와 서로 다른 문화 이해, 그리고 역사 이론 및 현대 기록학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hoannoh@hanmail.net